

2.28



Vol.99

2025 가을호

제25권 3호 통권 99호



:CONTENTS

2025 가을호 vol.99



04 2·28 대학생 하계연수 프로그램 운영

09 2·28 대학생 하계연수 참여 소감

역사적 외침이 청년의 오늘에



16 2·28 주요뉴스

- 1) 제25회 2·28학생문학상 전국공모전 개최
- 2) 2·28홍보위원 위촉식 개최
- 3) 2·28도서관 하반기 프로그램
- 4) 2·28청년아카데미, 2·28대학 개강
- 5) 버스킹 「달빛아래」 현장
- 6) 하반기 행사 안내
- 7) 2·28민주운동기념화관, 연일 이어지는 방문 행렬



표지사진

2·28기념탑 전경

대구는 2023년 4월 2·28민주운동기념탑을 새롭게 단장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노후화된 참배 공간을 재정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3년 3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33 인문학의 향기

- 1) 나무의 언어, 풀의 언어
- 2) 각설하고
- 3) 가을속으로

38 경북고 2학년생 서영우 님의 2·28민주운동 증언

44 단체별로 살펴본 대구 학생독립운동사

54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와 문화다양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장

60 청년의 목소리

공감의 정치, 벽 너머 민주주의를 향해서

66 천년의 잠에서 깨어나는 新실크로드 4

튀르키예 편

2·28회원님들이 2·28의 큰 힘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이며,

대구·경북의 자랑스러운 정신인 2·28을 널리 알리고 이어가는 일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2·28과 함께 하는 회원님들의 뜻과 정성은 2·28정신 선양과 계승에 큰 힘이 됩니다.

• 연 회 비 정회원 30,000원 / 후원회원 개인 100,000원, 단체 1,000,000원 이상입니다.

• 계좌번호 농협 301-0248-9904-81 / 대구은행 505-10-139462-2

• 예 금 주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본 법인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관련법에 의거 기부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28민주운동 주역과의 만남

주역: 홍종흠 원로

하계연수

주최: 2·2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하계연수 연수장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2·28민주운동 주역 홍종흠 원로

2·28 대학생 하계연수 프로그램이 7월 1일(화)부터 2일(수)까지, 1박 2일간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는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 40명을 선정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청년 세대가 어떻게 계승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연수 첫째 날에는 2·28기념사업회 박대훈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어 ‘2·28민주운동 알아보기’를 주제로 백재호 사무처장의 강연이 있었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과 그 정신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28민주운동 주역과의 만남’ 시간에는 주역인 홍종흠 원로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현장의 긴박했던 분위기와 청년들의 용기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분임토의 진행모습

다음은 ‘청년 세대에게 2·28정신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주제로 분임토의가 진행되었다. 최병덕 2·28연구원장의 진행하에, 지역적·민주주의적·미래지향적 관점을 중심으로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 토론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경험과 관점을 자유롭게 나누며, 2·28정신을 오늘날 청년 세대가 어떻게 해석하고 계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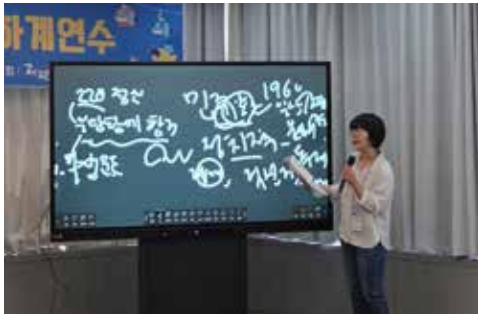
하계연수 단체사진 (부산해운대)

이후 참가자들은 버스를 타고 부산 해운대로 이동해 동백섬과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를 자유롭게 탐방하며 휴식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아르피나로 복귀한 후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조별 친목을 도모하였다. 특히 레크리에이션 시간은 신문지 뺄기 등 다양한 게임 진행으로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레크리에이션 참여모습





분임 토의 후 조별 발표 진행 모습

둘째 날에는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조를 구성하여 '2·28정신의 계승과 실천방안'을 주제로 토의하고 조별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어 전체 참가자들이 참여한 종합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를 마친 뒤에는 해운대 요트투어를 하며 휴식의 시간을 가졌으며, 점심식사를 끝으로 연수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다.

연수 수료생들은 "2·28민주운동에 대한 단순 학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조원들과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게 너무 좋았다",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데 힘쓰신 원로와의 질문에서 많은 관점을 접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견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기억에 남는다. 미래 세대를 이끄는 주역이 되어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겠다"는 소감을 남겼으며, 이번 하계연수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자아 성찰과 성장의 계기가 되었음을 밝혔다.

요트투어



역사적 외침이 청년의 오늘에

2·28 대학생 하계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경북대학교 인문커운슬링학과
박사과정생 이 현 화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 단어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의 피와 눈물, 그리고 작은 용기가 축적되어 이루어진 역사이자, 오늘의 세대에게 여전히 호흡하며 말을 거는 생동하는 가치이다. 나는 2025년 2·28 하계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그 숨결을 직접 듣고, 보고, 체험할 수 있었다.

무더운 여름, 부산에서의 이틀은 민주주의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감각이자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갱신되는 삶의 결이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역사 강연이나 일회적 캠프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의미가 상호 확인되고, 기억과 성찰이 켜켜이 쌓이는 체험의 장이었다. 무엇보다도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 큰 울림으로 남았다. 다른 대학생들과의 교류와 토론을 통해 민주정신은 개인적 깨달음을 넘어 공동체적 가치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 민주주의는 결국 '함께 있음' 속에서 뿌리내린다는 사실을, 나는 바닷바람과 햇살, 그리고 동료 청년들과의 교류 속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 최초의 민주화 운동, 역사의 첫 숨결을 듣다

이번 연수를 통해 나는 2·28민주운동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 즉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1960년 자유당 정권의 권위주의와 부정선거에 저항해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어선 사건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에 굴하지 않는 자유의 선언이었고, 이후 시민사회의 지지 속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벽을 열었다.

백재호 사무처장의 강연과 당시 영상 기록을 통해 나는 거리로 나선 학생들의 두려움, 그러나 그것을 압도한 정의감과 연대의 힘을 생생히 마주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내가 그 시대의 학생이었다면 거리로 나설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물음은 민주주의를 제도나 구호에 한정해 이해해 온 나의 태도를 성찰하게 했다. 민주주의는 특별한 역사적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 살아 있는 역사와의 대화

홍종흠 원로와의 만남은 기록을 넘어서는 경험이었다. 문헌 속 사건은 활자에 머무르지만, 증언은 살아 있는 호흡으로 다가왔다. 원로의 담담한 설명 속에는 여전히 청춘의 떨림과 긴장이 서려 있었고, 그 눈빛은 역사의 무게를 전해주었다. 홍종흠 원로께서는 영웅적 서사를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한 평범한 청년들의 작은 용기들이 모여 세상을 움직였음을 보여주었다. 그 만남 이후 나는 일상의 사소한 실천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공동체 안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일, 타인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과 같은 모든 사소한 일들이 민주주의를 이루는 장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주의는 먼 이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힘이였다.





■ 민주주의는 일상 속 실천이다

연수의 핵심 중 하나는 분임토의였다. 다양한 전공과 관심사를 지닌 학생들이 모여 민주정신의 현재적 의미를 논의했다. 청년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민주주의가 제도에 한정되지 않고 생활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토론은 때로 진지했지만 웃음과 공감으로 이어졌고, 그 자체가 민주주의적 소통의 장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청년은 무관심하다”는 사회적 통념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깨달았다. 청년들은 이미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고 공유할 기회가 부족했을 뿐이었다. 이번 연수는 이러한 숨은 목소리들이 만나 서로의 시각을 견주어 보는 귀중한 기회였다. 동료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민주주의가 청년 세대의 언어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시에 나 자신도 돌아보았다. 연구와 학업에 몰두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문제에 거리를 두지는 않았는가? 민주주의는 나와 분리된 제도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한 방식임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 뜨거운 바다 위, 더 뜨거워질 청춘

해운대 요트투어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은유를 제공했다. 바다 위의 바람은 자유로웠고 파도는 끊임없이 배를 흔들었지만, 공동의 균형 속에서 요트는 끝내 방향을 잃지 않았다. 민주주의 역시 불안정하고 흔들리지만,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존재할 때 절대 전복되지 않을 것이다.

내 삶 역시 그러하다. 학업과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은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나를 지탱하는 것은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신뢰와 연대이다. 흔들림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았던 동료들과의 경험은 민주주의가 공동체적 연대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 작은 불씨를 품고 돌아오다

이번 하계연수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의 정신을 청년 세대와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한다. 강연과 증언, 토의와 체험 활동을 통해 우리는 민주정신을 역사적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않고, 현재적 가치로 재해석할 수 있었다. 특히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2·28연합동아리'가 출범하여, 기억을 넘어 실천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점은 큰 의의를 지닌다.

연수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현재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바람과 파도의 감각이 남아 있다. 처음 만난 학생들과 전공과 꿈을 나누며 공감한 시간은 민주주의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 숨 쉰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청년 세대로서 나는 무관심에 안주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라도 내며 공동체의 길을 함께 가고자 한다. 한 개인으로서도 주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작은 연대의 실천을 이어갈 것이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과거 선배들이 자유를 위해 발걸음을 내디뎠듯이 이제는 오늘의 청년이 민주주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투표소에서만이 아니라, 강의실에서, 연구실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이번 연수는 민주정신이 가장 고양된 형태의 희망임을 깨닫게 하는 선물이 되었다. 역사와 현재가 만나 미래의 서사를 함께 써 내려가는 자리였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이러한 희망은 일상의 언어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민주정신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나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피울 것이다.

2·28 주요소식



- 01 제25회 2·28학생문학상 전국공모전 개최
- 02 2·28홍보위원 위촉식 개최
- 03 2·28도서관 하반기 프로그램
- 04 2·28청년아카데미, 2·28대학 개강
- 05 버스킹 「달빛아래」 현장
- 06 하반기 행사 안내
(헌정공연, 제25차 2·28민주포럼, 제6차 경북포럼)
- 07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연일 이어지는 방문 행렬

MAIN NEWS

01 제25회 2·28학생문학상 전국 공모전 개최

올해로 25회를 맞은 「2·28학생 문학상 전국 공모전」에는 전국 145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1,286편이 접수되며 역대 최다 출품 기록을 세웠다. 재작년 892편, 지난해 971편에서 꾸준히 늘어난 수치로, 청소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모전 주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으로서 4·19혁명의 출발점이 된 2·28민주운동’과 ‘2·28민주운동 이후의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였으며 접수 기간은 7월 8일 ~ 8월 5일까지였다. 심사는 지난 8월 12일(화) 10시부터 진행되었으며, 소설가 조두진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김노주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선정 시인, (필명)여정 시인, 이해경 수필가, 황영은 소설가 총 6명이 심사에 참여하였다.



제25회 2·28학생문학상 전국공모전 심사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노주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조두진 소설가, 이해경 수필가, 황영은 소설가, 김선정 시인, 여정 시인.



올해 심사 결과, 대상 2명, 금상 12명, 은상 18명, 동상 30명, 입선 42명 등 총 10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운문부문 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대구시지중학교 권효민 학생의 「첫새벽」, 산문부문에는 광주살레시오여자중학교 김나영 학생의 「기억의 깃발 아래, 우리는 걷는다」 작품이 영예를 안았다. 또한 단체상은 대구명덕초등학교, 왕선중학교 경북공업고등학교에 돌아갔다.

곽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은 “올해 공모전은 역대 최다 작품이 출품되며 전국적인 문학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며 “청소년들이 자유·정의·민주의 2·28정신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가치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두진 심사위원장은 “응모작품의 양과 질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용기와 자부심, 그리고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2·28정신이 작품 전반에 잘 담겨 있었다”고 총평했다.

한편, 제25회 2·28학생 문학상 전국 공모전 시상식은 오는 10월 2일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학교별 출품현황 및 입상자 명단은 79p에 있습니다.

제25회 2·28학생 문학상 전국 공모전 대상 수상작(운문)

첫새벽

권 효 민 (시지중학교 3-7)

첫새벽에 깨어나 울지 말라던가
 아직 뜨지 않은 해를
 잃은 것이라, 그렇게 이름 짓고 울었는가
 어두운 자정을 헤메이던
 그 모든 나날이 전부라 믿었는가, 또 잊었는가
 끝이 아름다울 연가를 부르라
 오래도록 꿈던 함성을 내어라
 백만 학도여, 그건 우리들의 불그스름한 청춘
 자유라 함에 몇 날이고 앓고 싶어라

그대, 잠든 곳은 아직 난파되지 않은 선상
 지저분히 남겨진 것들을 헤쳐나가라
 엮어가는 국화처럼
 끝자락의 거울처럼
 아릿한 슬픔은 모두 껴안고서
 봐야 할 것을 바라보라
 정전 속에서 불빛을 찾아 잠드는 것
 아주 오래도록 잠드는 것
 흑자가 그것을 명예라 말한다면
 우리는 필연이라 노래하리라

걸어가길 멈추지 않는 것을 어리석다고 부르짖는 사람아
 아아, 향기로 꽃을 짓이길 사람아
 1960년 2월 28일, 광야
 총성으로 보답하리라 마음먹었는가
 붉은 날
 녹슨 책
 찢긴 막
 나는 이곳에 몸을 뉘이네
 일어서질 못해 기어가서 반기니
 이제 막 눈 비비며 깨어난 그대
 늦어버렸음에 사과하지 말라
 보라, 날은 저가나 또 밝아오고 있지 않은가

제25회 2·28학생 문학상 전국 공모전 대상 수상작(산문)

기억의 깃발 아래, 우리는 걷는다

김 나 영 (살레시오여자중학교 2-1)

처음부터 모두가 용감하진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누군가의 내일을 위해 먼저 떨리는 발을 디뎠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하늘 아래에서.

그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학교 담장을 넘었다. 고요해야 할 일요일, 그들은 거리로 나와 외쳤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침이 아닌,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선생님도, 부모님도 아닌 학생들이 먼저 시작한 민주화의 발걸음. 2.28 민주운동은 그렇게 교과서 밖, 시간의 틈 사이에 살아 숨 쉬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교복을 입고 교실에 앉아있다. 뉴스 속에 세상을 바라보며 자꾸만 나에게 묻게 된다. “민주주의는 지금도 살아 있는가?”, “나는 그 깃발을 건네받았는가?”

한강 작가는 인터뷰에서 물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멈춰 서서, 나는 오래도록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말한다. 2.28의 그들이 지금 내게 손짓하고 있다고. 그들의 결심과 용기가, 지금의 나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고. 죽은 자는 산 자를 살릴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한, 계속되는 생명이다.

그로부터 수많은 계절이 지나고 수많은 봄이 찾아왔다. 5.18의 피 끓는 외침, 6월 항쟁의 촛불 물결, 그리고 광장마다 타올랐던 청춘의 함성들. 그 모든 순간에 처음 불을 지핀 것은 2월의 어느 하루, ‘학생’이라는 이름의 그들이었다.

나는 그저 오늘의 중학생이지만 가끔은 내가 입은 교복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생각보다 이 시대는 조용

한 척을 잘한다. 권력은 여전히 그럴듯한 말들 뒤에 숨고, 우리는 질문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정답에만 길들여진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선 2.28의 그들도 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혼란 속에서 고개를 들고 바라보고, 작더라도 옳음을 말하겠다는 마음. 민주주의는 결국, 그런 마음이 모여 만든 구조물이다.

민주주의는 누군가의 책상 위에 놓인 낱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릎 위에서 곳곳하게 자라난 신념이다. 우리는 교실이라는 작은 사회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부당함을 목격한다. 조용히 따르는 것이 미덕인 듯 여겨지지만, 나는 안다.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인 것을. 처음 침묵을 깬 사람은 언제나 손가락질 받는다. 하지만 역사 속 이름은 늘 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가끔은 묻는다. 과연 민주주의는 완성되었을까? 공정한 선거를 하고, 뉴스를 비판하고, 촛불을 드는 세상이면 충분한 것일까?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무너질 수 있기에 매일 다시 살려내야 하는 삶의 방식이다. 눈감는 습관 대신, 바라보는 용기를 선택해야 하는 당연하지만 어려운 매일의 선택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을 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에도, 조금은 나아진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기억한다. 민주주의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야 하는 것임을.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기억 속, ‘그때 그 학생’이라고 불릴 수 있기를 바라며.

깃발은 여전히 펄럭이고 있다. 지금, 우리의 교복 위에서.

02 2·28홍보위원 위촉식 개최

7월 18일(금) 2·28기념사업회는 2·28정신의 계승과 지역사회 홍보 및 소통을 위한 2·28홍보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위촉식에서 곽대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위촉된 홍보위원들이 앞으로 2·28정신을 시민과 미래 세대에게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이라며 위촉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좌) 곽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 (우) 김교정 2·28홍보위원회 위원장



홍보위원 위촉식



고은정 위원님 소감발표

위촉장 수여는 김교정 홍보위원장, 권상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이름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위원들은 홍보위원으로서의 소명을 담은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특히 김교정 홍보위원장, 권상주 부위원장, 고은정 위원이 대표로 소감을 전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2·28정신,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민주정신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행사 마지막에는 모든 위촉자와 내빈이 함께 단체 촬영을 진행하며, 2·28홍보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무리했다.



03 2·28도서관, 하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2·28민주운동기념도서관은 2025년 하반기를 맞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총 6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28 독서동아리



감정과 그림책



스마트한 스마트폰 사용법



신비한 공룡동아리



독서퀴즈



민주시민 인형극



2·28독서동아리



감정과 그림책



스마트폰 교육



민주시민인형극



2·28독서퀴즈

학부모 대상 독서 모임인 '2·28 독서동아리'는 9월 3일(수)부터 12월 24일(수)까지 매월 1,3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운영된다. 한 달에 한권 읽기를 목표로 하고, 정해진 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며 독서의 깊이를 더한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초등 1~2학년 대상의 '감정과 그림책' 프로그램은 9월 6일(토)부터 11월 22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14시~16시까지 운영하며, 초등 2~4학년을 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신비한 곤충 이야기'는 9월 3일(수)부터 11월 26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16시~18시까지 운영한다.

성인을 위한 디지털 기초 교육 '스마트한 스마트폰 사용법' 프로그램은 9월 6일(토)부터 11월 22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10시~12시까지 열려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을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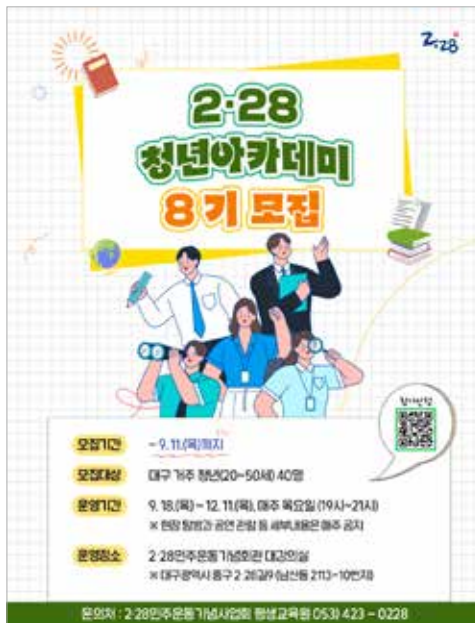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 인형극'은 1회성 공연으로 '동물학교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지난 8월 23일(토) 오전 11시에 진행되었으며, 초등학생 가족 약 50여 명이 관람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초등 전 학년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2·28 독서퀴즈'는 8월 12일(화)부터 상공 소진 시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운영된다. 2·28민주운동기념도서관 자료실 입구에 전시된 책을 읽고 퀴즈를 뽑아 정답을 적은 후 사서데스크에 제출하고 상품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2·28민주운동기념도서관(053-257-2280)으로 문의하면 된다.

04 2·28청년아카데미, 2·28대학 올가을 새 학기 개강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대표 교육 프로그램 「2·28청년아카데미」와 「2·28대학」이 각각 제8기와 제13기를 맞아 올가을 새 학기를 열었다.



2·28청년아카데미 제8기 모집

교수, 대구대학교 이미란 교수, 대구정책연구원 박양호 원장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됐다. 강의뿐 아니라 오페라 「카르멘」 관람, 도산서원 방문 등 현장 프로그램도 포함돼 청년들에게 다채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대상은 대구시민 20~50세 청년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2·28청년아카데미 제8기는 지역사회의 미래 리더로 성장할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리더십과 덕목, 교양을 폭넓게 전하는 과정이다. 9월 18일 (목) 개강해 12월 11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총 12회 운영된다.

강사진은 경북대 김영하 교수, 2·28민주운동 주역 최용호 교수, 방송인 박동주, 대구가톨릭대학교 장우영 교수, 경북대학교 이시철 교수, 재즈 아티스트 황찰리·한예진, 한국은행 본부장 김주현, 경북대학교 오정일



2·28대학 제13기 모집



2·28대학 제13기 수강생 모집

2·28대학 제13기는 9월 17일(수)부터 12월 10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2·28민주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매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의 「헌법 국가의 실현」, 김영수 영남대 교수의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과 TK」, 최승희 아주대국제대학원 초빙교수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미래」, 전충진 독도전문 기자의 「독도의 오늘과 내일」,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의 「분단과 통일사설과 자유·민주·평화」 등 다양한 강연이 마련됐다. 또한 대구미술관 견학, 스마트폰·AI 활용 체험, 건강·삶의 질 향상 강좌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실용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진행되며, 문의는 평생교육원(☎053-423-0228)으로 하면 된다.

05 2·28민주운동 65주년 기념 버스킹 「달빛아래」 현장

8월 28일(목) 동성로 28 ART SQUARE에서 '2·28민주운동 65주년 기념 버스킹 공연 「달빛아래」'가 개최되었다.

클래식, 오페라,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통해 민주주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풀어낸 이번 공연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시민참여형 거리공연으로 기획되었다.

공연은 오후 7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색소포니스트 가수 규리, 싱어송라이터 엘린, 소프라노 소은경, 가수 이새벽 등이 무대에 올라 약 100분간 진행되었으며, 동성로를 지나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가수 이새벽



노래하는 엘린



색소폰니스트 가수 규리



소프라노 소은경

2·28민주운동 65주년 기념 버스킹

달빛아래

2025. 8. 28.(목)
19:00 ~ 20:40

동성로 28 ART SQUARE
(대곡광역시 동구 동성로 28)

19:00 ~ 19:10	개회식
19:10 ~ 19:30	가수 이새벽 (가창가수 부대주최 1주)
19:30 ~ 19:50	노래하는 엘린
19:50 ~ 20:10	색소폰니스트 가수 규리
20:10 ~ 20:30	소프라노 소은경 외 1명 (오케스트라단도, 비)

「달빛아래」는 예술을 통해 민주주의를 일상 속 문화로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 시민 누구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무대로 마련되었다. 공연 중간에는 2·28민주운동 관련 퀴즈 이벤트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선물을 증정했고, 2·28정신을 음악과 예술로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06 하반기 행사 안내

제25차 민주포럼

- 일시 : 2025.10.31.(금) 14:00
- 장소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2001년부터 2·28민주운동의 정신과 이념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해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해마다 개최하는 정례 포럼이다. 제25차 2·28민주포럼의 주제는 “지역, 청년, 교육, 민주주의 - 2·28정신으로 다시 묻다”의 주제로, 최종렬(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고 박상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한다. 대구·경북 청년 현안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제6차 경북포럼

- 일시 : 2025.11.14.(금) 14:00
- 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세부 장소 추후 공지)

2·28경북포럼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민주운동의 정신과 이념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경북도민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경상북도 내를 순회하며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학술포럼이다. 경북 전역을 순회하는 정례 학술포럼. 『2·28민주운동과 일상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김영하 경북대학교 교수가 발제하며, 2·28 정신을 오늘의 일상 민주주의로 확장하는 논의를 펼친다.

제65주년 2·28민주운동 헌정공연 「기억과 울림, 자유를 향한 외침」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오는 10월 11일 토요일 대구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대극장에서 2025 제65주년 2·28민주운동 헌정공연 「기억과 울림, 자유를 향한 외침」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대구의 대표적 시민정신인 '2·28민주정신'을 확산하고,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65주년을 맞은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공연이다.

헌정공연은 총 3부로 구성돼 1부 「기억」, 2부 「울림」, 3부 「자유를 향한 외침」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메인 공연으로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소향이 함께 하며, 창단 4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3회 2·28 전국 청소년 댄스&가요제 입상팀인 웰보스크루(WELLBOSS CREW)와 충격, 공연예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예술사회적기업 한울림 등이 차례로 무대에 나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2·28 헌정공연의 주제공연은 사단법인 한울림이 맡아 창작 공연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객석에는 2·28민주운동 유공자, 회원, 기관단체장, 대구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2·28민주운동 65주년을 함께 기념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2·28유공자와 회원, 시민들에게 전석 무료로 오픈되어 티켓링크를 통해 1인 1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유공자 및 회원은 1인 2매까지 예매가 가능하며,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 ☎053-247-2285)



07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방문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방문과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7월 9일 2025 학교연합 학생회 정례회



7월 9일(수)에는 '2025 학교연합 학생회 정례회'가 열렸다. 이재화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과 최용호 2·28민주운동 주역의 '대구시교육청 학교연합 학생회 리더십 특강'이 진행되었다. 특강 후에는 분과별 모임과 토론이 이어지며 학생들의 활발한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7월 16일 어울림단 월례회의



8월 26일 부산남부혈액검사센터 방문

7월 16일(수)에는 어울림단 월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기획홍보국 직원 소개와 함께 꽃다발 전달식이 진행되었고, 이후 2·28기념사업회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8월 26일(화) 부산남부혈액검사센터 관계자들이 회관을 방문해 1층 전시관을 둘러보고 해설을 들으며, 2·28민주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8월 29일(금) 대구 동구 팔공문화원과 광주 무등산문화원 관계자 약 20명의 두류공원 내 2·28기념탑 참배를 지원하였다. 참가자들은 2·28민주운동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구와 광주 간 교류에서 2·28민주운동의 역사가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8월 29일 동구 팔공문화원 및 광주 무등산문화원 방문



8월 30일(토) 2·28대학생 하계연수 간담회가 4층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주요 사업 소개, 회관 전시관·아카이브실 안내, 참여 학생 소감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학생들은 연수 경험과 느낀 점을 자유롭게 나누며 2·28정신을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8월 30일 2·28대학생 하계연수 간담회





나무의 언어, 풀의 언어

하 청 호

산기슭에 밭이 하나 있다. 팔공산 서북 자락에 있는 산골 집 뒤편이다. 수십 년 전, 매입했을 때는 표층이 얇고 거름기가 적어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그래서 굴삭기로 산밭을 깊게 갈아엎었다. 몇 달 동안 돌과 자갈을 골라내고 퇴비를 넣어 땅의 힘을 돋우었다.

다음 해, 정리해 놓은 산밭 입구 가장자리에는 왕벚나무, 마가목, 함박꽃나무, 팔배나무 등 큰 키의 토종 나무를 심고, 안쪽 완만한 터에는 생강나무, 아그배나무, 때죽나무 등을 심었다. 그리고 울진에 가서 금강송 묘목을 구해 양지바른 비탈에 심었다. 화단에는 큰꽃 으아리, 깽깽이풀, 투구꽃, 꽃무릇, 할미꽃 등 추억의 꽃을 심었다.

너른 밭 가운데는 유실수인 감나무와 대추나무 수십 그루를 심어 수확을 기대하였고, 집 뒤편에는 각종 푸성귀를 심어 어설픈 농사꾼 흥내를 내었다. 내가 산밭을 가꾸면서 얻은 것은 풀과 나무는 그들의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갖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최적화된 삶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 역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들 마음도 이와 같다. 밭에서 돌과 자갈을 골라내고 거름을 주듯이 사람살이의 마음밭도 그렇다. 아집과 독선의 돌과 자갈은 삶의 성찰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따라서 이 걸림돌을 걷어내고 존재의 의미와 삶의 기쁨을 채워야 하지 않을까. 날이 선 비판도 너그럽게 포용하고 고뇌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다. 나무와 풀을 대할 때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처럼 나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의 언어로 접근하면 관점이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풀베기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아버지는 무성하게 자란 풀을 낫으로

빠르게 베며 앞으로 나아갔다. 나도 아버지를 따라 풀을 열심히 베었다. 아버지는 잠시 쉬는 틈에 내가 풀 베는 모습을 보더니, 풀을 잡는 손 모양과 낫질 하는 법을 시범으로 보여주었다. 풀 베는 요령은 풀을 잡는 방법이었다. 아버지는 비록 베어지는 풀일지라도 생명의 고귀함을 일깨워주었다. 아버지는 풀과 소통하며 생명으로 대했고, 나는 그냥 풀로 보았을 뿐이었다. 산밭에는 풀냄새가 사방으로 번졌다. 풀은 베어지면서 먹이를 찾는 산새들에게 냄새로 신호를 보냈다.

풀을 벤다
머리채 잡듯 거머쥐고
낫질을 한다//
애야, 아무리 잡풀이지만
그렇게 잡으면 못쓴다//
풀을 잡은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보니
풀을 쓰다듬듯 감싸고 있다//
아버지의 눈빛이
하늘색 풀꽃처럼 맑다

「풀베기」 전문

마을 사람들은 ‘농작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라고 했다. 미루지 말고 자주 돌보라는 뜻이다. 20여 년 남짓 산골 집에 머물며 나무와 꽃에 정성을 쏟았다. 지금은 나무들이 아름드리로 자라 서로 어우러져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를 반긴다.

산 아래, 흙먼지가 날리는 가을 들판에는 마늘을 심는 손길이 분주하다. 마늘은 추운 겨울을 겪어야 크고 튼실한 마늘쪽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인지 봄에 심은 마늘보다 가을

마늘이 크고 매운맛이 더하다. 추운 인고의 시간이 마늘을 더욱 매늘답게 하는 것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안다. 씨앗을 심고 가꾸는 행위, 그것은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농사는 실패하고 만다. 이것은 농부들이 작물의 언어로 소통한 결과이다. 그래서 농부들은 좀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작물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 가을은 잔결음으로 우리 곁에 오고 있다. 꽃들의 시절은 끝이 보인다.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산발 주위에는 단풍이 산 정상에서 붉고 노란 물을 부은 듯 천천히 밀려오고 있다. 집 주변에는 단풍의 선두 주자인 화살나무가 붉게 물들었다. 그 뒤로 감나무가 물들고 산벚나무, 신갈나무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울긋불긋 물들어간다. 한 해의 끝자락에 피는 국화와 구절초 위로 겨울 양식을 마련하려는 벌들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아마도 꽃들은 그들의 언어로 벌을 불러내지 않았을까. 꽃들의 마음을 읽으니 왠지 가슴이 따듯해 온다.

마루에 앉아 단풍을 보다가 문득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란 시의 구절을 생각했다.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송가(頌歌)의 마지막 구절이다. 이 말의 뜻은 오늘에 충실해야 아름다운 과거도 희망찬 미래도 생긴다는 것이다. 삶과 자연은 쉼 없이 되풀이된다. 하지만 반복에는 차이가 있다. 끊임없이 돌과 자갈을 골라내고 마음밭을 가꾼다면 이 차이를 깨달을 것이다. 산골에 살면서 얻은 것이 있다. ‘나무는 나무의 언어로 풀은 풀의 언어’로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 사이의 언어도 그렇다.

〈 하 청 호 〉

- 72년 《매일신문》 73년 《동아일보》 신춘 문예 동시 당선, 76년 《현대시학》 시 추천
- 시집 「다비(茶毘) 노을」 외 동시집 「잡초 뽑기」, 「무릎학교」, 「말을 행구다」 외
- 대한민국문학상, 방정환문학상, 대한민국예술문화상 외



각설하고

강 문 숙

말을 끊는다
말을 돌린다
말을 물리치며
각설하고, 를 잘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에게 말이란
각설일 때가 많다
뿔처럼 각진 눈꼬리를 치켜세우며
제 주장을 내세울 때 주로 나타나는 버릇이다

각설하고 싶은 일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다
정치인들의 티비 토론을 듣다가
오, 당신들은 저기 저 아마존으로나 가시지요
거기서 뿔이나 키우시지요
채널을 돌린다
말들이 난무하던 화면에
부러진 뿔들이 수북하다, 개뿔!

머리가 찌근거린다
드디어 내게도 뿔이 돋아나려는 중인가
어쩌겠나,
부디 그 뿔 꽃사슴의 그것이기만 바랄 뿐

어수선한 마음 추스르며
정원이 하는 말이나 받아 적을까, 창문을 여는데
비온 뒤 말갭게 핀 낮달맞이꽃 연분홍
첫, 송이

아침의 각설이다
이런 각설 환영이다

〈강 문 숙〉

- 매일신문 신춘문예 / 작가세계 신인상 등단
- 시집 「나비, 참을 수 없이 무거운」 외 4권 / 오페라 대본 「배비장전」, 「톡도 판타지」 등
- 대구문학상, 대구 시인협회상, 금복문화상(문학) 수상



가을속으로

하 영 희

어디를 가든 푸른 물이 똑똑
푸르다
하늘이

극한의 긴 폭염을 이겨낸
성큼 다가온 가벼운 실루엣의 바람주머니는
시간의 옷을 입고

마당의 한 그루의 층층이 나무는
연분홍 꽃웃음으로 인사를 한다

한줄기 섬광처럼 가을 빛이 된
하늘빛 클래식의 연주는
온 산천을 붉게 노랗게 꽃불을 태우겠지

언제나 빛은 어둠보다 더 찬란해

나뭇가지에 떨고 있는 갈 바람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
어느새 깊어진 가을속으로



〈 하 영 희 〉

- 강릉 출생문학예술 시 등단, 한맥문학 수필 등단
-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경북문협 회원 경산문협 이사
- 시집 「이 참을 수 없는 사랑」, 「불을 흠친 한 줄기 바람」, 「그리움 그윽한 눈으로」 등

경북고 2학년생 서영우 님의 2·28민주운동 증언



김노주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사진 1〉 2·28 당시를 증언하는 서영우 님과 필자

서영우(英羽) 님은 1942년에 대구 계산동 상화 고택 인근에서 태어나 계산동에서 주로 살았고 1960년 2·28민주운동 당시에는 경북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다. 〈사진 2〉에서 결의문을 읽고 있는 이대우 학생부위원장과 안효영은 고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2·28 유공자 홍종흠 원로는 고교 동기였고, 대구고를 졸업한 안인옥 유공자는 대학교 동기였음을 기억하였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신명여중, 부산 대연여중, 대구 효성여고, 경북대 사범대 부속고등학교, 과학고, 경덕여고를 거치며 40년간 국어교사로서 교단에서 셴다. 꾸준히 연극 활동을 하셨으며 극단 ‘공간’과 ‘대구 무대’의 대표까지 역임하였다. 서영우 님의 용모가 너무 준수하셔서 필자가 대면하자마자 “영화배우 같으십니다.”라고 했던 말이 제대로 적중한 것 같았다.

〈사진 2〉에서 이대우 학생부위원장이 2·28민주운동결의문을 읽어내려 갈 때 서영우 님은 운동장에 집결한 800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 서있었다. 사흘 전 종례시간에 담임으로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28일 일요일에 기말시험을 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학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지금과 달리 당시엔 토요일 오전까지 수업이 있었다. 그래서 일요일 등교는 6일간의 등교 후에 찾아오는 유일한 휴식의 날을 빼앗아 가는 것이었다. 게다가 3월 3일에 치르기로 했던 기말시험을 앞당기니 학생들로서는 시험공부를 할 시간을 빼앗기는



〈사진 2〉 학교 조희단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는 이대우와 안효영

것이였다. (당시엔 4월에 새 학년이 시작됐으므로 3월 초순에 기말시험을 치는 것이 관례였다.) 당연히 “자유는 자유당에게만 있고 국민들에겐 없다.”는 불평이 쏟아졌다.

2월 28일 일요일 오전부터 이미 졸업을 해버린 3학년을 제외한 1, 2학년생 대부분이 운동장에 집결했다. 12시 50분쯤, 이대우 학생부위원장이 “백만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서는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백이며, 이러한 행위는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를 우렁차게 읽어 내려갔다. 선생님들은 구우일모(九牛一毛), 즉 “황소 아홉 마리에 털 하나 뽑자는 꼴이다.”라고 하며 제지하였지만 학생들은 “쓸 데 있는지 없는지는 해봐야 알지요.”라고 대응하며 선생님들을 뿌리치고 정문을 박차고 나아갔다.

경북고 정문 자리는 지금의 청운맨션 서문 자리이며 〈사진 3〉의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섰다가 지금은 〈사진 4〉의 중구 복지누리 만다비 체육센터가 건립되고 있다.

〈사진 3〉의 표지판 좌측 도로가 대봉로인데 2·28 당시 정문으로 나온 학생들이 대봉로를 따라 지금의 경북대사범대부설고등학교 쪽으로 내달렸다. 증언을 마치고 현장 답사를 할 때



〈사진 3〉 청라국민체육센터 표지



〈사진 4〉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공사 현장

서영우님은 마치 그날의 함성을 들으시는 양 상기된 목소리로 “여기가 당시 경북고 정문 자리야. 이리로 나와서 저쪽으로 내달렸지!”라고 하였다. “교문을 나섰을 때는 가슴에 막힌 것이 뚫리는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도 했다.

이 길(대봉로)을 따라 당시 삼덕우체국(지금의 대봉우체국)을 지나 대구상업고등학교(지금의 경남센트로팔레스 아파트)와 경북대사범대부속고등학교(지금의 경북대사범대부설고등학교)를 지나갔다. 두 학교 학생들은 교문과 담장 안에 갇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너희는 왜 안 나오노? 안 나오나?”를 외치며 달려갔다.

지금의 달구벌대로를 따라 좌로 꺾어 반월당으로 향하며 학생들은 “일요일에 등교하라는 이유가 뭐냐?”, “학원을 정치도구화하지 마라!”, “학원에 자유를 달라!” 등의 구호를 쉴 새 없이 외쳤다. 시위대는 반월당에서 구호를 외치며 잠시 머물다 우로 꺾어 중앙로(지금의 중앙대로)를 따라 경북도청(지금의 경상감영공원 자리)으로 향했다. 학생들이 중앙파출소 앞을 지나갈 때만 해도 경찰은 학생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예외적인 일이라 학생들이 무슨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해했다. 어떤 한 교통경찰은 시위대의 행진을 도우려고 지나가는 차량을 멈추기까지 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등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사진 5〉 2·28 당시 반월당으로 향하는 학생들

준 것이다.

중앙로를 따라 매일신문사(지금의 KB국민은행 자리) 앞에 이르렀을 때 학생들은 “우리는 동방의 빛이다!”, “학원 내에 정치세력 배제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신문사 기자들이 뛰어나왔고 학생들은 그들의 상황을 언론에 호소하였다. 시위대는 계속 전진하여 한국은행 대구지점(지금의 하나스테이포점 오피스텔 자리) 모퉁이를 좌로 돌아 경북도청에 몰려 들었다. “우리는 정당하다!”, “정의는 살아 있다!” 등의 구호를 외쳤고 이때가 오후 1시 30분 경이었다.

이런 와중에 〈사진 2〉에 나온 안효영 학생이 경북도청 중앙 정원에 뛰어들어 “우리는 이러한 불합리를 방관할 수 없다. 우리가 땅을 치고 통곡해도 저들은 우리들의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함께 뭉쳐 치고 나가자!”고 외쳤다. 이어서 이대우가 뛰어올라 격분한 목소리로 결의문을 다시 낭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찰들의 제지로 낭독을 끝맺지는 못하였다.

이 무렵 경북도청 구내에 있던 경북경찰국에서 경찰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시위대가 대부분 도청 을 빠져나올 순간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부딪혀 피를 흘리게 되었다. 몇몇 경찰관은 땅바닥에 쓰러진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거칠게 곤봉을 휘둘러댔다.



〈사진 6〉 2·28 당시 중앙로에서 도청으로 향하는 학생들

이런 광경을 목격한 학생들은 체포를 두려워하면서도 경찰에 저항하며 맞서 싸웠다.

경북도청을 빠져나온 약 250여 명의 학생들은 다시 모여 당시 한국은행 대구지점으로 돌진했으며 “학생들에게 시위의 자유를 달라!”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지금의 경상감영로를



〈사진 7〉 도청 광장에 집결한 경북고 학생들



〈사진 8〉 2·28 당시 도로를 질주하는 학생들



〈사진 9〉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는 경북고 학생들

따라 대구 시청(지금의 대구시의회 및 대구 시청 동인 청사 자리)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도로변에 나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학생들을 응원했다.

시청으로 달려가던 시위대는 우선 자유당 경북도당사 앞에 이르렀다. 투입된 수백 명의 경찰이 주먹과 곤봉을 휘둘러 유혈사태가 났고, 약 150명의 학생들만이 시청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시위대는 “학생 시위의 자유를 달라!”, “학원 내 민주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다시 경찰과 충돌한 뒤 뿔뿔이 흩어졌다. 시청까지 진출했던 서영우 님은 경찰의 체포를 피해 다른 두 명의 학생과 함께 한 가정집으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밖이 조용해질 때까지 한참을 보낸 후에야 귀가할 수 있었다.

이틀 후 3·1절 기념식에서는(그해는 윤년이라 2월이 29일로 끝났음), 김영기 교장선생님 으로부터 “민족정기를 해치는 장난을 치지 마라.”는 질책을 받았고, 또 이틀 뒤인 3일에는 “그런 무모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유명 변호사 선배의 특강을 들어야만 했다.

그동안 자신의 삶에 바빴던 서영우 님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지만 기념사업회와는 인연이 없었다. 필자와 인연이 닿아 기념사업회 1층에 있는 전시관을 둘러보았고, 4층 회의실에서 증언을 한 후 점심을 드셨고, 오후엔 승용차를 타고 위에서 설명했던 시위 현장을 함께 답사하였다. 65년 반(半)전의 일을 회상하며 전 과정 내내 감회가 깊으셨다. 만 여든 돌이셨지만 아직 정정하시니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길 기원한다.

단체별로 살펴본 대구 학생독립운동사

광복 80년을 맞아 대구의 독립운동사, 특히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살펴봅니다. 대구 학생들은 2·28운동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열었듯이 항일투쟁으로 조국의 새 역사도 썼습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 나누어 대구 학생독립운동사를 연재합니다.



정 만 진 (소설가)

산남의진

을사늑약 이후 전국적으로 의병이 봉기하던 1906년 3월, 고종황제로부터 의병을 일으키는 밀지를 받은 정환직이 아들 정용기와 함께 영천·경주·청하·청송 등지에서 활약하게 되는 산남의진을 창립했다. 산남의진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906년 4월 께기해 영덕·영양·포항·삼척 등지에서 일본군과 싸우는 신돌석의 영릉의진과 더불어 영남 지역 대표 의병 부대로 발돋움했다. 산남의진은 영릉의진과 연합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기도 했다.

산남의진이 대구 지역 최초의 독립운동단체로 기억되는 것은 대구진위대 참교(하사)였던 우재룡의 활동 덕분이다. 우재룡은 나이 18세이던 1902년 구한말 한국의 군대인 대구진위대에 입대했다. 그는 대구진위대에서 근무하던 1906년 7월 대구감옥에 수감 중인 산남의진 창의장 정용기를 출옥시키기 위해 전국 애국지사들이 뜨거운 석방 활동을 펼치는 것을 보고 감동,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한다.

1907년 7월 31일 일제의 강압에 따라 군대해산령이 반포된다. 대구진위대에서 5년 동안 근무했던 23세 우재룡은 귀가하지 않고 멀리 경북 청송으로 간다. 산남의진에 자원 가입해 의병이 되려는 굳센 걸음이었다.

산남의진군은 7월 17일 청하 전투, 8월 24일 영천 전투 등에서 승리하지만 9월 1일 포항 죽장 입암에서 대패한다. 이 전투에서 대장 정용기, 중군장 이한구, 참모장 손영각 등 핵심 장수들이 목숨을 잃었고, 병사들도 19명이 전사했다.

우재룡 등은 순국한 정용기 대장의 아버지 정환직을 찾아 세상을 떠난 아들을 대신해 의병장을 맡아달라고 청한다. 그러나 그해 12월 정환직도 순국한다. 산남의진은 1908년 3월 이후 최세운을 제3대 의병장으로 세워 활동을 재개하지만 그해 여름 최세운과 선봉장 우재룡이 체포당하면서 사실상 해체된다.

당시 우재룡은 산남의진의 서부 지역 책임을 맡아 팔공산 동화사에 주둔했었다.

우재룡이 1908년 산남의진 서부 지역 책임자로서 의병 활동 본부를 차려두었던 동화사



그런 까닭에 산남의진은 대구 지역 최초의 항일 결사 활동으로 기억된다. ‘내란죄’로 종신형 처분을 받아 복역 중 1911년 ‘합방 특사’로 풀려난 우재룡은 “191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독립운동단체(제5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 광복회의 지휘장(참모장)을 맡아 맹활약한다. 그러나 1921년 4월 18일 결국 재차 피체되어 두 번째로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함흥감옥에 투옥된다.

우재룡은 대구 이곡동에 거주하기도 했다. 그의 아들 우대현은 현재 광복회 대구지부장을 맡아 헌신하고 있다. ‘대장(大將) 정공(鄭公) 양세(兩世) 순국기념 산남의진비’가 문화원 뜰에 건립되어 있는 영천이 산남의진의 본향임에는 틀림없지만, 두류공원에 ‘우재룡 선생 기념비 및 흉상’이 세워져 있는 대구 또한 독립운동단체 산남의진의 혼과 피가 서려 있는 고장이라 하겠다.



산남의진 선봉장과 광복회 지휘장으로 활동한 우재룡 지사의 흉상과 기념비 (대구 두류공원)

또 하나, 우재룡은 1902년 18세 때 구국일념으로 군에 입대했다. 산남의진에 투신할 때에도 23세였다. 그 무렵은 학생 신분의 청년이 거의 없었다. 즉 우재룡이 학교에 다니는 실제 학생이 아니라 군복무 중이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23세 나이는 요즘으로 환산하면 대학 4학년 연령이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경우에는 2학년가량 된다. 우재룡의 1907년 당시 연령 23세는 2025년의 경우 거의 학생 신분 나이이다.

뿐만 아니라 우재룡이 동화사에서 일본군대에 붙잡힐 당시 팔공산 주둔 산남의진 의병 중 최후 순국자 오순의 나이가 15세였다. 15세는 요즘의 중학교 3학년이다. 산남의진이 의병부대이므로 학생 독립운동과 무관한 듯 여겨지지만 그렇게만 판단하는 것은 선부른 재단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구한말 의병부대에는 요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나이의 어리고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많았다. 그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우현서루

민족시인 이상화는 6세 때 아버지와 영별했다. 이상화의 아버지 이시우가 1907년 30세에 타계하면서 이시우의 형, 즉 이상화의 큰아버지 이일우가 상화 4형제를 키웠다. 이일우는 후손들을 우현서루(시무학당)에서 배우게 했다.

우현서루는 이일우의 아버지 이동진이 설립한 학교(시무학당) 겸 도서관(우현서루)으로 교육계몽운동 기관이었다. 자수성가한 이동진은 1894년 자신의 소유 농토가 1254두락에 이르자 그 중 230두락을 인척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400두락을 출연해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가난한 사람들의 결혼, 장례, 병원 비용을 해결해 주었다. 그 이후 사람들은 이동진 집안을 '이장가(李庄家)'라 부르게 되었다. 많은 땅[庄]을 내놓아 사람들을 구휼한 이씨 집안이라는 뜻이다.

이동진은 1904년 생애 마지막 과제로 교육운동을 염두에 두었고, 장남 이일우를 서울로 보내 선각자들과 두루 협의하게 한 결과 1905년 우현서루 겸 시무학당을 열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이일우는 후손들이 일제 교육에 물들 것을 우려해 관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우현서루에서 공부시켰던 것이다.

구한말은 총칼을 들고 일제에 맞선 의병 항쟁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계몽운동이 활발했던



1905년~1910년 구국계몽운동 기관으로서 독립지사들을 배출한 우현서루 터
(대구은행 북성로지점, 우현서루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도서관)

구국운동의 시기였다. 1905년 문을 열어 우리나라 최초 사립 도서관으로 평가받는 우현서루는 대구 중구 수창동 101-11(현 대구은행 북성로지점)에 있었다.

1924년 일본 왕궁에 폭탄을 던지는 김지섭 지사 등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해내는 우현서루를 일제가 가만히 놔둘 리 없었다. 결국 우현서루는 1911년 강제로 폐쇄당했다.

우현서루는 1907년 대구광문사와 더불어 국채보상운동의 양대 축을 담당했던 대구광학회의 사무실로도 쓰였다. 국채보상운동에는 나이, 성별, 신분 등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들이 동참했다. 청소년들도 다수 가담한 것이야 두 번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1905년 개교한 우현서루는 항일민족정신을 기르고,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고, 뒷날 독립군이 된 청소년들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한 곳이다. 우현서루 터인 대구은행 북성로지점 1층에 우현서루 관련 글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오늘도 우현서루 터는 대구 학생들이 쉽없이 방문하는 독립운동의 성지로 부각될 가치가 있다. (우현서루 터 가까이 대구광문사 터가 있다. 수창초등학교 뒤 담장 아래인데, 이곳 또한 국채보상운동과 관련해 꼭 답사할 필수 유적지이다.)

신민회

1907년 4월 전국 최대의 비밀 독립운동단체 신민회가 결성되었다. 신민회는 1911년 ‘신’민회가 나라를 부‘흥’시킨다는 뜻의 ‘신흥’강습소를 세웠고, 1919년 신흥무관학교로 발전시켰다. 신민회 창립을 주도한 30여 지사들 중 안창호 등 17명은 1898년 당시 독립협회 산하 만민공동회(민중 집회)를 이끌 때 불과 13세~23세에 지나지 않았다. 13세 이종호, 18세 김립, 신채호, 임치정, 정재관, 19세 유동열, 20세 이강, 조성환, 안창호, 21세 이갑, 최광옥, 22세 김구, 23세 남형우, 노백린, 안태국, 전덕기, 주진수,

신민회의 최연소 회원은 대구 서변동 출신 구찬회였다. 구찬회는 1890년 ‘경상북도 달성군 성북면 서변동 1111번지(현재의 북구 서변로3길 47-12)’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한학을 배운 구찬회는 17세이던 1907년 신민회에 가입했다.



신민회 최연소 회원으로 활동 중 순국한 구찬회 지사 생가터 (대구 북구 서변동)

구찬회는 압록강을 건너가 만주로 가서 망명 항일투쟁을 했다. 그는 1909년 12월 각종 독립운동 독려 문서들을 자필로 옮겨 국내 인사들에게 배포하던 중 일제에 붙잡혔다. 일제는 그가 아직 청소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배후 인물을 실토하라면서 잔혹한 고문을 가했다, 지사는 굴하지 않고 악형을 받았다. 결국 지사는 1910년 5월 13일 가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신민회는 그 자체로 학생 독립운동단체는 아니지만 나이로 볼 때 구찬회 지사처럼 청소년 연령에 불과한 회원도 있었다. 최연소 회원으로서 순국까지 한 구찬회 지사가 대구 사람이라는 사실을 대구 시민들, 특히 대구 청소년들과 교육자들은 깊이 기억해야 한다.

3·1운동 집단 참여 학생들

1919년 3월 8일은 우리나라 3대 시장 중 한 곳인 서문시장의 장날이었다. 대구3·1운동을 주도한 계성학교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교남YMCA를 비롯한 기독교계 인사들은 큰장(서문시장)에 사람들이 특히 많이 운집하는 장날을 맞아 시장 북판에서 만세운동을 벌이

1919년 대구만세운동을 이끈 계성학교 (왼쪽 아담스관 지하에서 만세시위 용품을 제작했다.)





1919년 3월 8일 서문시장 독립만세에 참가하기 위해 학생들이 이동했던 90계단 (선교사주택단지 가는 길)

기로 계획했다. 시장이 계성학교에서 가까워 만세운동 준비물을 들이지 않고 운반하는 데 안성맞춤이었다.

만세운동에는 신명여학교 학생들도 적극 동참했다. 대구고보(경북고) 학생들도 계성 측의 연락을 받고 백기만, 허범, 신현옥 등이 이상화의 집에 모여 계획을 세운 후 당일 서문시장으로 달려갔다. 학생들은 선교사 주택 일대의 '3·1운동길 90계단'을 올라 동산을 거쳐 지금의 오토바이 골목 일대인 서문시장으로 내려갔다.

남산교회 김태련 장로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자 시위 군중은 서문로를 걸어 대구경찰서(현 중부경찰서)로 나아가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대는 식산은행 대구지점(대구근대역사관) 네거리에서 우회전해 종로, 대구읍성 남장대터(중앙파출소), 달성군청(대구백화점 일대)까지 전진했다.

지금 남구 이천동 ‘캠프 핸리’ 자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보병 80연대가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채 긴급 출동했고, 결국 시위대는 끌려가고 무자비하게 폭행당해 흩어졌다.



1919년 대구독립만세 이후 계성학교 학생들 중심의 해성단이 철시운동 등을 펼쳤던 종로

이날 잡혀가지 않은 학생들은 다시 학교별 회의 후 3월 10일 남문밖시장(염매시장 일원)에서 재차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이를 시위로 남산교회 김용해 신도(24세, 계성학교 중퇴, 김태련 장로의 아들)가 목숨을 잃고, 222명이 일경에 구속되어 고문을 당했으며, 74명이 징역 3년~집행유예 1년을 언도받았다. 이 글이 학생독립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해당 연령층의 명단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5세 이규환(계성 3학년) / 17세 김달윤(계성5) 서복이(계성4) 이남숙(해성학교 졸업생) 이석도(계성1) 이성해(계성1) 장봉수(계성2) 허성도(계성5) / 18세 김수길(계성4) 김수천(대구고보1) 박몽포(계성3) 백기만(대구고보3) 안영두(계성2) / 19세 권명화(계성5) 권중윤(계성5) 김재소(대구고보4) 손석봉(계성4) 정인엽(계성2) 장해동(계성1) /

20세 김재범(계성3) 나상기(계성2) 박재곤(계성3) 이만이(계성4) 이복건(성경학교) 이이석(계성3) 하운실(대구고보2) 허범(대구고보4) / 21세 강학봉(계성 중퇴생) 박성용(계성3) 박태현(계성5) 손치봉(계성3) 신창식(계성4) 이기명(계성6) 최영학(계성) 허방(계성1) / 22세 권성우(계성5) 김무생(송실학교 학생) 이승욱(계성5) 김삼도(계성6) 이영식(계성5) 정원조(계성6) / 23세 신현욱(대구고보 4) 이덕주(농업) 이선희(신명여학교 졸업생) 임봉선(신명 졸업생) 임용한(농업) / 24세 김봉안(농업) 박만준(성경학교) / 25세 박상동(계성3)

심문태(계성6) 이창순(계성6) / 27세 박남준(대구고보4)

학생이 51명으로 전체 74명의 68.9%나 된다. 51명 가운데 70.6%인 36명이 계성학교 학생으로, 74명의 48.6%에 이른다. 당시 계성학교 전교생이 46명이었다. 46명 중 78.3%인 36명이 투옥되어 고문당하고 형을 언도받았으니 1919년 대구만세운동에서 계성학교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그 뒤에도 대구 학생들은 일제에 굴복하지 않았다. 계성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혜성단을 결성해 시장 철시 운동, 독립운동 군자금 모금,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일본인 관리 협박 활동을 펼쳤다. 혜성단 투쟁에서도 계성학교의 허성도(18), 김수길(19), 이종현(19), 이기명(22), 이덕생(22), 이영식(22) 학생이 피체되어 징역 4년~1년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이 학생들은 모두 만세운동 때 이미 형을 받은 전과자(?)들이었다. 혜성단 투쟁 때 학생은 아니지만 20세 안팎의 이영옥(19), 이명건(19), 이수건(22), 이종식(25)도 피체되어 징역 3년의 고문과 옥살이의 고통을 겪었다.

▶▶▶ 단체별로 살펴본 대구 학생독립운동사는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와 문화다양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장



경북대학교 행정주무관
황 규 진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디즈니 월드가 있는 미국 플로리다의 어느 모텔 앞, 여섯 살 소녀 무니는 친구들과 함께 낡은 건물 주변을 뛰어다니며 하루를 모험처럼 살아간다. 그녀의 눈에 모텔은 성처럼 웅장하기도 하고, 미로처럼 신비롭기도 하다. 하지만 카메라가 한 발짝만 물러나면, 그곳은 제도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임시 거처임이 드러난다.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The Florida Project)(2017)는 화려한 플로리다와 낡은 모텔촌의 강렬한 대비 속에서 시작된다.



모텔촌과 그 앞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면

존 베이커 감독은 디즈니월드 인근 모텔촌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따라가며,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미국 사회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미국은 흔히 기회의 땅, 풍요와 자유의 나라로 그려지지만, 그 화려한 이미지 이면에는 언제나 가난과 불평등, 배제라는 그늘이 공존한다. 이 작품은 바로 그 ‘이중적 현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엄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작품은 가난과 배제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만, 아이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기 때문에 결코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무니의 세계는 자유롭고, 유쾌하며, 무궁무진한 상상으로 가득하다. 아이의 웃음소리와 화려한 원색의 색채는 그들의 현실을 가려주는 가면이 아니라, 힘겨운 조건 속에서도 삶이 지닌 생명력과 회복력을 드러낸다. 관객은 무니의 눈을 따라가며 우리가 외면했던 세계를 새롭게 마주하게 된다.

모텔촌 - 제도 밖에 형성된 공동체

영화 속 무니와 헤일리가 살아가는 모텔은 단순한 숙박 공간이 아니다. 정규직을 가지지 못한 부모들, 안정적인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이들, 사회적 제도와 안전망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 형성한 하나의 생활 공동체다. 모텔의 복도와 계단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좁은 방은 가족의 거실이자 식탁이자 침실이 된다.

여기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가 없다. 미혼모,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 혹은 부모 없이 모텔에 맡겨진 아이들까지, 가족의 형태는 제각각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 살아낸다’는 사실이다. 가난과 불안정 속에서도 이들은 서로를 지탱하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모텔 관리자 바비(윌렘 대포 분)는 그 공동체의 중심에 있다. 그는 단순히 건물을 관리하는 직업인이 아니다. 아이들을 지켜보고 어른들의 갈등을 완화하며, 때로는 따끔하게 꾸짖지만 결국 보호자처럼 그들을 감싸안는다. 혈연도, 법적 책임도 없지만, 그의 존재는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다.

이 모습은 곧 우리 사회와도 맞닿아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미혼모 가정, 청소년 가장, 이주민과 난민 등, 제도적 보호망에서 밀려난 이웃들은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바비가 무니를 돌봐주는 장면



무니와 헤일리가 서로를 마주 보며 즐거워하는 장면

그들의 삶은 제도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때로는 ‘문제적 존재’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들 또한 존엄한 시민으로 포용해야 한다. 모텔이라는 경계 공간은 곧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상징한다.

아이의 시선 - 민주주의가 놓치기 쉬운 목소리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아이의 시선을 따라간다는 점이다. 감독은 카메라를 낮은 위치에 두어 무니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담는다. 이 기법은 단순한 형식적 장치가 아니라, 관객으로 하여금 아이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민주적 시선의 장치이기도 하다.

화려한 색감, 원색적인 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장면들은 동화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와 대비되는 결코 동화적이지 않은 현실이 겹쳐 있다. 어른들의 세계에는 경제적 불안, 불안정한 노동, 사회적 낙인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무니는 이러한 현실을 알지 못하는 듯 뛰어놀지만, 그녀의 상상력은 제도가 보장하지 못하는 자유를 창조한다. 버려진 건물은 그녀에게 비밀 기지가 되고, 막힌 길은 모험의 출발점이 된다.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확장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목소리다. 제도의 언어와 수치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가장 약한 존재들의 삶, 사회의 가장 작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가 심화되는 과정이다.



무니가 친구와 함께 모텔촌 위에 뜬 무지개를 바라보는 장면



문화다양성과 민주주의 - 차이를 넘어 권리의 문제로

문화다양성은 흔히 인종, 언어, 종교, 민족의 차이를 존중하는 문제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 범위를 훌쩍 넘어선다.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의 삶 또한 문화 다양성의 일부임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디즈니월드라는 화려한 환상의 공간과 모텔촌이라는 가난의 공간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불과 몇 킬로미터 차이밖에 나지 않는 두 공간은, 어떤 이는 세계 최고의 오락을 누리고, 어떤 이는 하루를 연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영화는 이 대조 속에서 묻는다. “과연 누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고, 누구는 배제되는가?”

민주주의란 단순히 다수의 지배가 아니다. 가장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문화다양성은 차이의 인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더 깊고 넓게 만드는 길이며, ‘다른 삶’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약속이다.

(무지개는 부자동네와 가난한 동네를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상징한다.)



등장인물들이 던지는 질문 - 가족, 보호 그리고 존엄

헤일리는 젊은 미혼모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친다. 때로는 불법적인 선택도 하지만, 무니를 향한 애정만은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그녀와 무니의 삶은 불안정하고 위태롭지만, 동시에 강렬한 생명력으로 빛난다.

그들의 삶을 지켜보는 바비는 ‘선한 관리자’ 그 이상이다. 그는 제도와 제도의 틈새 사이에서 이들을 지탱하는 상징적 인물이다. 혈연으로 묶이지 않았음에도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는 그는, 어쩌면 가족보다 더 큰 울타리일 수 있다.

이 세 인물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가족의 개념을 다시 묻는다. 혈연과 제도로만 규정된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고 보호할 수 있는 관계 또한 가족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곧 민주주의적 연대의 또 다른 얼굴이다. 민주주의는 제도 속 권리 보장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관계를 통해 확장된다.



영화가 남기는 울림 - 2.28민주운동의 정신과 연결하며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자극적인 사건이나 드라마틱한 반전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 대신, 잔잔한 일상의 순간들을 통해 삶의 본질을 드러낸다. 화려한 볼거리도 웅장한 음악도 없다. 그러나 영화가 끝난 뒤 관객의 마음에는 묵직한 여운이 남는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존재를 바라보는 경험에서 비롯된다.

2.28민주운동은 ‘보이지 않는 진실’을 드러내려는 청년들의 외침에서 비롯되었다. 권위주의 권력에 의해 억눌리고 침묵을 강요당했던 시대, 대구의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자유와 정의를 요구했다. 이는 단순한 반독재 투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던 목소리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행위였다. 억압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려 했던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영화 속 모텔 사람들의 삶 역시 민주주의가 반드시 품어야 할 존엄의 한 장면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존재하게 만드는 시선’은 곧 2.28민주운동의 정신과 닮아있다. 2.28민주운동은 단지 정치적 저항의 사건이 아니라 침묵 속에 가려져 있던 청소년과 시민들이 스스로를 세상 앞에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 용기는 “우리도 여기 있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근원적인 외침이었다. 영화 속 모텔 사람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 눈길조차 닿지 않는 자리에서 그들의 하루가 빛을 얻을 때, 우리는 민주주의가 품어야 할 진정한 얼굴을 마주한다. 그것은 누군가의 거대한 승리라기보다는 이름 없는 이들의 작은 삶이 존엄으로 기억되는 순간이다. 민주주의란 특정한 날의 투쟁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확장된다.

맺음말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문화다양성을 단순한 차이의 인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가치로 재조명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우리가 외면한 세계 속에도 삶의 진정성이 있고, 공동체의 또 다른 얼굴이 있다.

디즈니월드의 성은 여전히 반짝이지만 그 그림자 아래 무너는 여전히 뛰어놀고 있다. 그 아이의 웃음을 통해 우리는 질문을 받는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삶을 ‘존재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은 2.28민주운동의 정신과 이어진다. 민주주의란 특정한 날의 투쟁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소외된 이들을 ‘보이게 하는 시선’을 지켜내는 일이다. 바로 그 점에서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문화다양성 영화이자, 민주주의의 길을 다시 성찰하게 만드는 귀중한 작품이다.

[이 글은 필자가 ‘2025 경북대학교 문화다양성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토대로 수정·확대하였음을 밝힙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이 가 현

공감의 정치, 벽 너머 민주주의를 향해서

✓ 경계의 정치

세계 민주주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Regimes of the World의 V-dem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민주주의가 하락세에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질서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이기적인 결정이 차지할 때 초래된다. 즉,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민을 미룰 수 없다. 한국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가?

우리는 계엄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결코 절대적 견고함 위에 있지 않음을 목도하였다. 동시에, 위기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회복 탄성력을 가졌음을 다시금 깨우쳤다. 헌정 질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으며 시민들 또한 침묵하지 않았다.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2.28 이후 꺼지지 않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외쳤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경계 없는 공간에서 우리 앞에 존재를 드러내곤 한다.

그러나 정권의 교체가 곧 민주주의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방심해서는 안된다. 벽이 없는 광장은 어느덧 존재를 감추고 우리는 다시 수많은 일상적 경계 속으로 돌아간다. 남성과 여성, 청년과 기성세대, 진보와 보수 등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경계는 개념적 구분을 넘어 집단의 가치와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경계는 이렇게 차이를 규정하는 선이자 사회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서로 다른 집단이 각자의 언어와



가치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러한 경계가 이해의 연결고리가 아닌 고립의 벽으로 굳어지는 문제에서 시작한다. 차이는 이해되지 않고, 갈등은 협의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계는 서로 다른 집단의 목소리가 마주치는 접점이자 충돌하는 균열이라는 양면의 잠재력을 가졌다. 민주주의의 존망은 이 힘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본질, ‘반대의 존재’

민주주의의 핵심은 ‘반대의 존재’이다. 적과 반대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배제의 여부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적은 파괴해야 하는 대상인 반면 반대자는 나와 다른 지점에 정당하게 존재함을 수용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반대자의 존재는 정치적 논의의 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건전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들 사이의 충돌을 용인하고 개방적인 이익 다툼을 요구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는 양극화 문제이다. 대립하는 이념과 가치가 반대 집단을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분열이 극에 치닫는 것이다. 하지만 양극화는 대립의 존재 자체로

촉발되는 현상이 아니다. 대립은 반대의 공존 가능성을 시사하는 장치로도 작동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경쟁적 모델을 제시하는 경합적 민주주의는 갈등이 시민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 말한다. 즉, 갈등이 역설적으로 평등으로 나아가는 성장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대립 의견의 표출은 민주주의가 침묵을 강요하는 체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갈등은 사회가 끊임없이 가치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양극화의 결과론적 해결 방법이 아니라, 존재하는 대립을 어떻게 수용하고 다루어 생산적 에너지로 전환할 것인지를 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한국 정치는 반대의 존재를 수용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한국 사회에서는 대립이 미래를 향한 희망적 움직임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맞물리며 굴러가야 할 톱니바퀴가 서로 앞서려 다투다 멈춰버린 모습이다. 타인을 정당한 반대자가 아니라 파괴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며 단일한 이념만이 정당이라고 외치는 일은 이념 극단화를 통한 자기 정당화로 이어진다. 자유롭게 생각을 표출하고 경청해야 할 토론장은 모두를 위한 합의장이 아닌 내 편을 위한 경기장이 되고 마는 것이다. 국회 필리버스터가 속고를 위함이 아닌 이익을 위한 의견 관철의 수단이 되고, SNS가 다원화된 의견 표출이 아닌 혐오의 수단이 되는 일을 우리는 안타깝게 목격하였다. 결국 민주주의 구현은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도덕적 가치들을 단일화된 결론으로 환원하려는 폭력적인 과정으로 변모하고 마는 것이다.

이는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역시 일상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데 익숙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정치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무너지고 있다. 댓글창, 단톡방, 회식 자리에서의 갈라짐은 더 노골적이다. 성평등 정책은 정말 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쏜대는 쓸모가 없으며 청년의 분노는 요즘 것들의 오만인가? 국가적 애도를 요하는 참사에 이념의 딱지를 붙이는 것은 누구인가? 우리는 피상적으로 남에게 관심을 가지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영원히 맞닿을 수 없는 평행선에 갇힌 우리는 그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는 양극화 자체가 아니다. 반대를 건설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존중 문화의 부재다. 반대는 민주주의를 뛰게 하는 심장 박동이지만, 그 맥박을 경청하는 사람은 몇 안 되는 듯하다.

경계를 넘는 공감의 정치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을까? 공감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인지적 능력이다. 즉, 노력을 통해 길러지는 기술이자 태도라는 뜻이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공감의 기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신애는 이렇게 말한다. “아저씨, 저희들도 난쟁이랍니다. 서로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한편이에요.” 담담한 문장은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을 일깨운다. 인간은 서로 다른 듯해도 결국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단순한 원리를 잊고 끊임없이 경계를 높여 서로를 낮선 타자로 만들고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인가. 타인의 마음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복잡함을 헤아릴 수 없는 법이다. 세대갈등은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우리나라를 경제 강국으로 살려낸 기성세대는 근면과 규율, 헌신의 가치를 공유한다. 경제적 생존이 곧 삶의 규율이었고 이것이 세대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능력이 포화된 시대에 진입하며 청년세대는 공정과 자율, 다양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카를 만하임에 따르면, 세대란 단순히 나이로 구분되는 집단이 아니라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단위이다. 같은 시대를 살아도 사회적 위치와 경험이 다르면 상이한 입장을 지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쉽사리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를 이겨낸 부모 세대와 그 책임을 물려받은 자녀 세대는 서로 살아본 적 없는 시간 간의 단절 앞에서 찢찢매고 있다. 어쩌면 눈치채려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경계 간 갈등은 한국 사회가 어떤 가치를 새로운 시대의 질서로 선택할지의 문제이다. 갈등을 분열의 징후 대신 민주주의 성장 과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각자를 지탱하는



가치가 비슷한듯 상이하여 존재론적 고민 속에서 해매는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대한
민국은 과연 서로 다른 '나'의 문제로 영긴 거대한 올가미일까. 사실은 공감의 상실된 '우리'가
당면한 벽이 아닐까?

우리는 고난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고난의 목격자가 되기도 하며 복잡한 인생을 살아간다.
타인의 마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타인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같은 시대를 공유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본질 찾기

칼 포퍼는 '오류 가능성(fallibilism)'을 강조하며, 우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존 롤스 역시 '시민적 예의(duty of civility)'를 말하며, 타인의 관점을 설명
하고 존중할 책임을 민주 시민의 덕목으로 제시했다. 민주주의는 빗물 새는 지붕에 널판지
대듯 고치는 것이 아니다. 존중의 빈자리를 성급한 제도 도입으로 메우려 하는 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우리에게는 한층 더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적인 것의 귀환』(상탈 무페, 2007)에서는 민주주의의 본질이 다원성을 인정함과
더불어 갈등을 해결할 생각을 포기할 때에만 시작될 수 있는 '끊임없는 재구성 과정'이라고
말한다. 다원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하나로 수렴되는 이익을 상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주장과 저 주장 중 하나만 옳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논의는 결코 진정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다. 따라서 무폐는 갈등을 민주주의의 실현 조건이자 해결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보고, 민주주의를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어떠한 좋음(good)으로 간주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도래할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확실성의 표지가 해소된 텅 빈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정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합의와 만장일치가 가능하다는 생각 또한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다양한 입장들이 만연한 사회에서 정치 전선은 존재해야만 한다. 여러 정치 전선이 유발하는 갈등을 정치적인 것의 본성으로 인정할 때 그들과 우리의 차원이 공존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 접근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하나의 역설을 포함한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순간 그것은 분해되며 따라서 민주주의는 항상 미래의 어떠한 지점에 있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갈등을 완전히 포용하게 된다면 또 다시 정치의 공허함 상태가 실현되기에 갈등은 항상 민주주의의 동력으로서 자리해야 한다. 이런 완결될 수 없는 체제가 바로 “도래할 민주주의”다. 정치적인 것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되 결코 완결에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을 향한 끊임없는 논의로 여겨져야 한다.

다시, 경계를 넘는 공감의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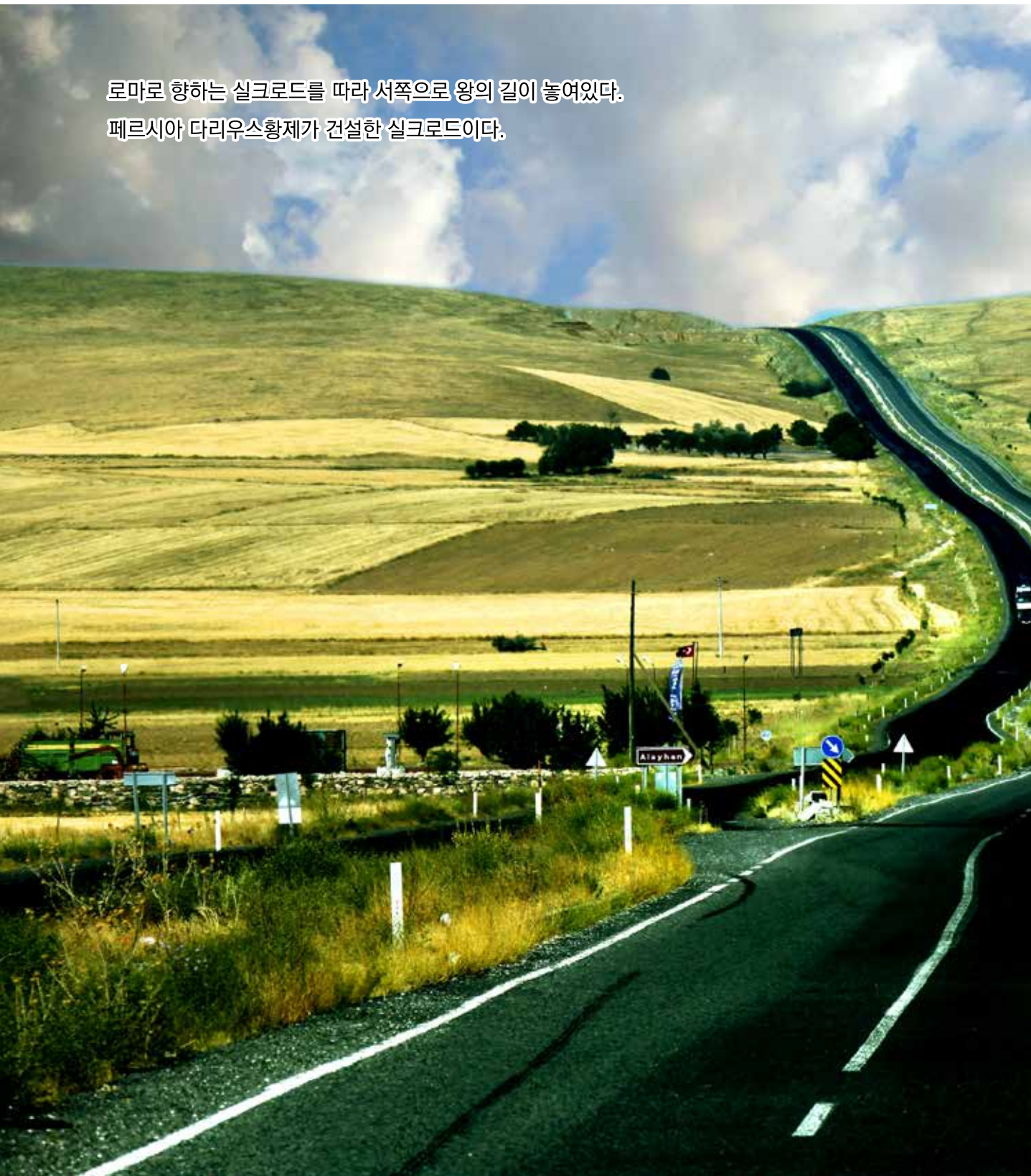
대구 2.28 민주화운동은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교정의 담벼락을 넘으면서 시작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벽을 넘을 차례이다.

『안녕이라 그랬어』(김애란, 2025)의 〈좋은 이웃〉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

“그런데 어떤 존재들은 왜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까. 실은 돌아왔는데, 몇 번 돌아왔었는데 문이 굳게 잠겨 있어서, 우리가 깜빡하고 닫아놓은 문만 한참 바라보다 떠난 건 아닐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타인에 대한 환대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경계를 넘기 위해 우리는 계속 문을 두드릴 것이다.

로마로 향하는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왕의 길이 놓여있다.
페르시아 다리우스스황제가 건설한 실크로드이다.



천년의 잠에서 깨어나는 新실크로드 4 튀르키예 편



실크로드포럼 지도교수
전 매일신문 도쿄특파원 박 순 국



실크로드 여행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한다. 고행을 자초하는 구도자의 길이다. 그곳은 가도 가도 사막뿐. 그러나 21세기 실크로드에는 문명의 혜택으로 낙타 대신 말끔한 포장도로가 놓이고 자동차가 달린다. 그 길 옆 모래 언덕 속에는 명멸한 수많은 문명의 흔적과 그 역사를 이끌어 온 선인들이 미라로 잠들어 있다. 긴 시간을 들여 척박한 모래땅을 답사하는 것은 마음속의 오아시스를 찾아서 조금은 쉬고 싶은 이유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알기 위해서이다.

실크로드 탐사를 5계년 계획으로 세우고 일차연도에는 중국 시안에서 국경도시 카슈카르까지 주파했다. 중앙아시아 지역 실크로드 답사는 이차연도로 완료했다. 세 번째 여정은 과거 페르시아였던 이란을 거쳤다. 이번에는 옛 동로마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즉 오늘의 이스탄불이 있는 튀르키예를 찾는다.

인천공항에서 시작한 이번 여행은 하늘길로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렀다. 옛날 실크로드 상인들은 몇 달이나 고생하며 대륙을 횡단했는데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발아래 스쳐 지나가는 실크로드 벨트를 내려다보며 날아갔다. 목적지 튀르키예로 진입한다. 역사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제부터는 동서양의 교차로에서 바라보게 된다. 그동안 자세히 모르고 지내온 이슬람의 세계로 성큼 들어온 것이다. 가는 곳마다 이상하고 신비스러운 나라다. 거리와 시장을 걸으며 인파 속에 섞여 보고 버스에 올라 극심한 교통체증도 체험해 본다. 그 이유는 파란만장한 역사의 파도를 헤치며 굳세게 살아온 사람들의 질긴 생명력을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카파토키아 - 격동의 세월 이겨낸 곳

로마로 향하는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길을 재촉한다. 길은 역사의 부침에 따라 여러 갈래로 생겨났다. 그런데 튀르키예의 교통안내 지도를 보면 동서로 연결된 도로 중에서 왕의 길을 비롯한 많은 노선들이 한 곳을 경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곳이 카파토키아 지역이다. 전략적 통로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역사의 격동을 고스란히 겪으며 그 질곡의 세월을 이겨낸 곳이다.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에도 등장할 정도로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져 튀르키예 관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3백만 년 전부터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용암으로 형성된 응회암층이 긴 세월 비바람에 침식되어 지금과 같은



카파토키아는 실크로드의 전략적 통로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역사의 격동을 고스란히 겪었던 곳이다.

기암 괴석군이 형성됐다. 이들을 바라보면 우주의 요정이 나올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영화 '스타워즈'의 촬영지가 되기도 했다. 카파토키아는 실크로드가 통과하는 길목으로 대상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던 곳이다. 이 핵심 교통로를 차지하려는 쟁탈전은 계속됐고 고대 히타이트 시대부터 시작되어 페르시아, 로마 제국 등으로 주인이 자주 바뀌었다. 중세 이후에는 비잔틴 제국과 아랍, 투르크인들이 치열하게 싸웠다. 따라서 지하 동굴을 깊이 뚫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필연적 장소가 되었다. 그 후 기독교 교인들이 찾아들어 신앙과 포교의 장소가 된다. 지금도 몇 군데에는 응회암 동굴을 개조한 펜션이나 동굴 호텔들이 성업 중이다.



실크로드 대상들의 숙소인 카라반사라이는 낙타가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 단위로 지어져 있었다.

카라반 사라이 - 대상들의 휴식처

실크로드 여행 도중에 ‘술탄한’이라는 마을에서 약 7백년 전에 지어진 튀르키예 최대의 카라반사라이를 만났다. 실크로드 대상들의 숙소는 낙타가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 단위로 지어졌으며 숙소의 기능과 함께 약탈에 대비한 요새로 조성되었다. 건물 안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으로 자리를 분배하고 식당과 마구간 시설이 있다. 내부정원에서는 활발한 상거래도 이루어지는 등 대상들에게는 없어서 안 될 중요한 베이스 캠프였다. 옛날 실크로드가 통과하는 각 나라들은 교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당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도로, 낙타 대상, 카라반사라이였다. 숙소에서는 토착민과 이민족을 구별하지 않고 3일까지는 음식을 제공하고 신발을 수선해 주었다. 낙타를 보살피고 말발

급도 달아주었다. 이 모든 서비스들은 전문 인력들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대상들은 군사의 보호를 받았다. 저녁에는 음악과 춤판도 펼쳐졌고 수피즘의 신비스런 춤 공연도 있었을 것이다.

이슬람 신비주의의 교파인 메블라나 교단의 발상지 콘야에서 수피 춤 공연을 보았다. 춤을 수행의 한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들은 신과 합일을 이루는 춤을 춘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공연장에서는 술과 음료수도 마실 수 있다. 먼저 기도를 하고 작은 복을 두드린다. 검은 망토를 벗고 한명 씩 천천히 원을 그리며 회전하기 시작한다. 점차 빠르게 돌면서 오른손은 위로 왼손은 아래로 향한다. 위로 신의 축복을 받아 아래로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의미다. 불교의 '상구보리 하회중생'인 셈. 춤을 추는 동안 세속적 욕망을 포기하고 신과 합일로 새로 태어남을 의미한다. 신과 영적인 교감상태에 들어갔는지 춤을 추는 사람의 표정은 환각 상태에 빠진 듯하다. 그러나 관광객들을 상대로 펼치는 공연일 뿐이다. 콘야 시내에 세워진 수피댄스 추는 모형을 보면 외지인에게 도시를 알리려는 홍보광고물로 보여진다.

이슬람의 교단 중에서 신비주의의 교파인 메블라나 교단의 발상지 콘야에서 수피 춤 공연이 펼쳐진다.





파묵칼레에는 석회성분을 품은 섭씨 35도 정도의 물이 지하에서 스며 나와 언덕을 흘러 거대한 석회 언덕이 형성되어 있다.

피묵칼레 - 로마의 온천휴양소

콘야에서 서쪽으로 버스로 8시간을 더 가면 석회층과 고대도시가 있는 파묵칼레에 도착한다. 마을이름이 ‘목화의 성’이라는 뜻의 파묵칼레가 된 것은 마을 뒷산을 감싸고 있는 하얀 석회층이 마치 목화솜으로 만든 성곽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석회성분을 품은 섭씨 35도 정도의 물이 지하에서 스며 나와 언덕을 흐르며 석회가 남고 그 위에 계속해서 침전이 진행되어 거대한 석회 언덕이 형성된 것이다. 매년 1밀리 정도 증가하는 석회층의 나이는 1만 4천년 정도라고 한다. 매표소를 지나면 누구나 신발을 벗어두고 맨발로 들어간다. 무릎 정도 깊이의 따뜻한 물속을 걸어가 본다. 새하얀 석회암 바닥이 발바닥을 자극해 기분이 포근해 진다.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인파로 하루 종일 북적인다. 석회층 뒤편 언덕 위로 고대도시 히에라폴리스가 발굴되고 그 일대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자 더욱 유명해져 터르키에 관광의 필수방문 지역이 되었다. 용서와 관용 속에 선한 삶을 강조하며 수행하는 수피즘의 춤. 터르키에의 오래되고 숭고한 종교적 자산으로써 그 숭고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것은 파묵칼레의 무분별한 개발과 과도한 상행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들 실크로드상에 있는 역사문화자산 모두는 그 지역만의 정신문화와 유적이 아닌 전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보스포루스 해협 - 해양실크로드의 요충지

튀르키예 제1의 도시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도시로 2,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도시의 한가운데를 흐르며 유럽과 아시아를 갈라놓는 보스포루스 해협은 좁은 협곡을 따라 흑해에서 지중해 쪽으로 빠른 속도로 흘러간다. 그 길이는 32키로이며 바다 밑바닥은 지중해의 염도 높은 무거운 물이 오히려 흑해 쪽으로 흘러간다. 보스포루스 해협의 양편에는 멋진 궁전들과 녹음에 둘러싸여 있는 고급저택들이 해협의 물빛과 조화를 이룬다. 이곳은 기독교와 이슬람, 비잔틴과 오스만 제국이 경쟁을 하면서 인류역사의 흐름을 바꾼 수많은 격돌의 현장이다. 그러한 투쟁의 역사는 바닷물 속에 잠기고 오늘날은 절경과 해양스포츠의 낭만이 넘치는 곳이 됐다.

보스포루스 해협을 빠져나가면 지중해로 연결되므로 이 물길은 고대로부터 해상교통로의 중요한 지점이었다. 그곳을 지배한 자가 해협 양측 언덕 위에 성을 세우고 포대만 구축하면 방어하기 좋은 지리적 조건이 되었다. 그래서 오가는 물동량의 세금을 거두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가 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튀르키예의 성장 잠재력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해양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으로써의 역할도 보스포루스 해협은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튀르키예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륙의 접점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고대로부터 수많은 왕국이 역사 속에 등장하고 사라져갔다.

아시아와 유럽사이의 보스포루스 해협은 해상교역로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해협을 가로질러 보스포루스 대교가 걸려있다.



고대도시 에페소는 전체가 유적지이므로 성지순례 교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몰려온 탐방객로 언제나 북적인다.



에페소 - 로마의 항구고대도시

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지중해와 만난다. 그곳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번영했던 많은 고대도시의 유적들이 존재한다. 당시에 활발했던 해양실크로드와 육상실크로드의 합류지점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육상 실크로드는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세력을 떨치던 페르시아 왕조에 의해 저지됨으로 해로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었다. 그러한 번영의 과실을 완전한 형태로 장악한 것이 기원전 1세기 전후 이 지역을 지배한 로마제국이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은 유럽 쪽 피정복국가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실은 인도양을 거쳐 동쪽으로 더 나아가 중국 일대까지 통했던 것이다. 그 과실의 획득은 동로마 비잔틴제국을 거쳐 오스만제국까지 계속 연결되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심 거점으로 발전해 온 항구도시 에페소는 기원전 6세기 이전부터 해양무역의 중심지였다. 이집트, 그리스상인은 물론 인도상인들로 활기를 띠던 도시였다. 로마의 속주가 되었을 때는 소아시아 즉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제일 중요한 무역항으로 인구가 25만이 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에페소 해안의 선착장에서 시작해 완만한 경사길이 일직선으로 뻗어있다. 아르카디안 거리이다. 도로는 대리석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 옛날



상점들이 늘어서 있고 밤에는 가로등도 밝혀져 상인들과 선원들로 붐볐다고 한다. 해양 실크로드의 기항지였으므로 배에서 육지로 진기한 물건들이 옮겨졌다. 이 거리는 크레오 파트라가 안토티니우스와 함께 걸었다고도 한다. 도로 끝에는 거대한 원형극장이 연결된다. 기원전 3세기 헬레니즘 시대에 지어졌다가 1세기 로마 네로황제 시대에 증축되었다. 최대 수용인원 2만4천명의 규모로 연극과 문화예술 공연뿐 아니고 검투사와 맹수의 싸움도 벌어졌다.

원형극장 맞은편에 화려한 셀수스 도서관이 당당하게 서있다. 우아하면서도 균형 잡힌 이 석조건축물은 에페소의 상징이기도하다. 전면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의 찬란했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 도서관은 서기 135년 로마의 아시아주 총독이었던 셀수스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이 지은 것이다. 네 개의 정문 위에는 각각 여인의 석상이 있어 지혜, 덕성, 학문, 지식을 상징한다. 이곳에는 약 1만2천권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기둥 연결부분의 장식이 이오니아식과 코린트식을 절충하고 있는 등 에페소의 유적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고대도시의 입구로 들어서니 수많은 대리석 조각들이 시선을 압도한다. 오랜 세월 동안 석재를 제외한 건축자재들은 모두 없어지고 오롯이 돌로 만든 도시의 골격만 남아있는 것이다.

이스탄불 -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

참 먼 길을 거쳐 아시아 대륙의 맨 서쪽 끝까지 왔다. 이스탄불에 도착했다. 인구 1천2백만이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 사이에 걸쳐있다. 동서양의 역사와 문화의 교차로이며 고대와 현대가 동시에 숨 쉬는 곳이기도 하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스탄불을 가리켜 ‘인류문명이 살아있는 거대한 노천 박물관’이라고 했다. 많은 위대한 제국들이 이 도시를 바탕으로 몰락하고 발전하는 역사과정을 반복했다. 이스탄불 시민들은 제국이 남긴 다양한 문화의 도가니에서 살고있는 셈이다. 택시들이 1500년 전에 건설된 성 소피아 성당 옆을 지나가고 연인들은 천 년 전 로마제국의 성벽 옆을 산책한다.

이스탄불은 원래 그리스인들이 건설한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의 도시국가였다가 로마 영토로 편입되었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서기 330년 이곳을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 정하고 이름을 콘스탄티노플로 바꾸었다. 5세기경 이태리 반도의 로마는 몰락한다. 동쪽으로 수도를 이전한 것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 셈이 됐다. 콘스탄티노플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가 됐고 비잔틴 제국은 천년 동안 번성했다. 중국의 사서에도 대진국(大秦國)으로 그 기록이 남아있고 실크로드의 서쪽 기점으로 교역도 활발했다.

- 성 소피아 성당

로마의 황금기에 들어간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유명한 성소피아 성당은 건축됐다. 연인원 1만 명이 동원돼 5년10개월 만에 완공했다. 본당으로 들어서면 중앙 돔을 중심으로 이슬람 문자가 새겨진 큰 원판이 눈에 들어온다. 예언자 무하마드를 비롯한 이슬람 지도자의 이름이다. 이 건조물이 겪어 온 수난은 이스탄불 또는 튀르키예가 겪어 온 역사의 풍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스만 제국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은 함락되고 도시이름도 이스탄불로 바뀌었다. 성 소피아 성당은 파괴될 위기에 처해졌으나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대신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되는 운명이 됐다. 건물 주위에 첨탑이 세워지고 내부의 모자이크 성화는 회벽으로 덮였다. 오늘날 튀르키예공화국에 들어와 아야소피아 박물관으로 개방되면서 벽의 칠도 벗겨졌다. 기독교의 성화와 코란의 금빛 문자가 혼재되어 있다.

이스탄불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우선 ‘그랜드 바자르’로 향한다. 실크로드를 따라 들어온



약 1천5백 년 전에 연인원 1만 명이 동원돼 완공한 성소피아 사원.
이 건조물이 겪어 온 수난은 이스탄불이 겪어 온 역사의 풍상을 함께 보여준다.

아시아의 물품은 이곳을 통해 유럽으로 흘러들어 왔고 유럽의 재화도 아시아로 전하는 국제교역의 메카였다. 점포 5천개 규모의 튀르퀴예 최대의 시장으로 하루 종일 북적인다. 이스탄불에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 중에는 신시가지의 탁심 광장도 유명하다. 상업과 쇼핑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광장으로 정치적인 모임이나 시위가 열리는 곳이다. 광장과 연결된 이스티크랄 거리는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최고의 변화가이다. 빨간색의 전차 트램만이 천천히 오가는 보행자 천국 도로이다.

이스탄불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 역사의 층이 마치 벽돌처럼 층층히 쌓여있는 도시 위를 걷게 된다. 어디서든 과거와 현재가 충돌한다. 사라진 로마의 궁전 위에 오스만 제국의 모스크가 서있다. 오늘날, 아파트 건물이 과거 고대 로마제국의 지하 저수조 위에 건립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한 도시가 파괴 될 때마다 다음 세대는 과거의 폐허 위에 과거를 능가하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다는 점이다.

실크로드 종주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여행은 만남이라고 했다. 역사와 문화의 만남, 대자연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과의 만남도 생겨난다. 이제 실크로드 대장정을 마쳐야한다. 실크로드 종주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은 서너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현지의 정보를 잘 파악하고 가능하면 사전지식을 많이 숙지하고 가야한다. 실크로드 여행을 더욱 알차게 하려면 관련서적을 읽어 보며 가상여행도 해보면 좋겠다. 실크로드 역사서, 여행기 등은 다수 출판되어 있다. 길을 떠난 자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법이다. 부디 여행을 통해 고단한 삶을 쉬어가며 실크로드의 도전정신으로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실크로드와 관련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4회를 연재하면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다. 독자들 중에는 실크로드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여행도 다녀오고 싶은 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잠시 소개하려 한다. 영남대 글로벌평생교육원에서 필자가 강의하는 ‘실크로드, 길 위에 길을 열다’라는 과목을 개설, 모집 중이다. 올 가을에는 9월24일 개강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3시에 시작한다. 비슷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여 실크로드를 테마로 공부할 예정이다.

한참 전에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 즉 지금의 서안을 방문했었다. 현장법사의 불경이 안치된 대안탑 앞에서 향을 피우고 멀고 먼 실크로드 여정의 무사함을 기원했다. 신라의 혜초스님도 인도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장안으로 돌아와 탑 앞에 섰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곳은 신라와 실크로드의 연결점이었다. 고구려 멸망의 원인이 지나치게 힘을 숭상하고 전쟁을 선호한데 있었다는 측면도 있다. 반면에 탁월한 외교력으로 국제교류를 펼친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하고 오랫동안 왕조를 유지됐던 그 의미는 소중하다. 천 년 전 실크로드의 동방종착지 경주가 21세기 새로운 출발지가 되어 드넓은 역사문화 고속도로를 열어나가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경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빛나는 문화 명품이 되기 위해 세계의 다른 문화와 끊임없이 만나는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APEC 정상회의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면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부록 | 제25회 2·28학생 문학상 전국 공모전 출품현황, 입상자 명단

1. 학교별 출품현황

• 총 145개교, 1,286명 참여

1) 학교별 출품 및 입상 현황

- 초등 32개교, 중등 45개교, 고등 68개교

〈 초등학교 〉

연번	학교명	출품작품수			입상자수			상별					
		운문	산문	계	운문	산문	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합계
1	경산성암초등학교	1		1									
2	경산옥곡초등학교	1		1									
3	광명광성초등학교	1		1	1							1	1
4	군위초등학교	1		1									
5	당진원당초등학교	1		1									
6	대구경동초등학교	1		1	1		1				1		1
7	대구고산초등학교	1		1									
8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3	19	22		6	6		1	2	1	2	6
9	대구대청초등학교		1	1									
10	대구동덕초등학교		1	1		1	1		1				1
11	대구동도초등학교		1	1									
12	대구동인초등학교	22	4	26		3	3				1	2	3
13	대구동천초등학교	1		1									
14	대구명덕초등학교	69	57	126	12	3	15		2	3	3	7	15
15	대구범일초등학교	2		2									
16	대구삼육초등학교		3	3		1	1				1		1
17	대구새론초등학교		1	1									
18	대구성동초등학교	1		1									
19	대구영신초등학교	2	1	3									
20	대구장동초등학교	1		1									
21	대구한샘초등학교		1	1		1					1		1
22	대구화원초등학교		1	1									
23	대청초등학교		1	1		1	1				1		1

연번	학교명	출품작품수			입상자수			상별					
		운문	산문	계	운문	산문	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합계
24	범일초등학교	1		1									
25	생금초등학교	2		2	1						1		1
26	서대전초등학교		1	1									
27	서울세륜초등학교	1		1									
28	왕선초등학교	1		1									
29	장당초등학교		1	1									
30	정관초등학교	1		1									
31	진건초등학교		1	1		1				1			1
32	함현초등학교	10		10	2		2					2	2
초등학교 소계		124	94	218	17	17	34	0	4	6	10	14	34

〈 중학교 〉

연번	학교명	출품작품수			입상자수			상별					
		운문	산문	계	운문	산문	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합계
1	경구중학교		1	1									
2	경북대학교사범대학 부설중학교	1	1	2									
3	고령다산중학교		1	1	1		1					1	1
4	관음중학교	1		1									
5	군산남중학교	1		1									
6	달서중학교	13		13									
7	대건중학교	1	1	2									
8	대구강동중학교		1	1	1		1			1			1
9	대구동도중학교	2	1	3	1		1		1				1
10	대구동중학교	1		1									
11	대구성명여자중학교		1	1									
12	대서중학교	1		1									
13	덕원중학교	1		1									
14	동삭중학교	1		1									
15	동성중학교		1	1									
16	목포하당중학교	1		1									

연번	학교명	출품작품수			입상자수			상별					
		운문	산문	계	운문	산문	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합계
17	박문중학교	1		1									
18	범물중학교		2	2									
19	범박중학교	1		1		1	1					1	1
20	부산국제중학교	1		1									
21	사수중학교		1	1									
22	살레시오여자중학교		1	1	1		1	1					1
23	새론중학교	1		1									
24	성명여자중학교		1	1	1		1					1	1
25	수성중학교	90	41	131		1	1					1	1
26	시지중학교	3	1	4	1	2	3	1		1	1		3
27	예봉중학교	1		1									
28	왕선중학교	493	121	614	9	11	20		3	3	6	8	20
29	용정중학교	1		1									
30	이리남중학교	1		1									
31	임실지사중학교		1	1	1		1					1	1
32	장당중학교		1	1									
33	장성삼서중학교	1		1									
34	중촌중학교	1		1		1	1					1	1
35	중흥중학교	1		1									
36	증평중학교	1		1									
37	진선여자중학교	1		1									
38	천내중학교	147	2	149		2	2				2		2
39	충남여자중학교		1	1	1		1			1			1
40	포산중학교		1	1									
41	하나로스쿨	1		1									
42	한울안중학교	1	1	2	1		1				1		1
43	함현중학교	3		3									
44	호곡중학교	1		1									
45	황금중학교	1		1									
중학교 소계		776	183	959	18	18	36	2	4	6	10	14	36

〈 고등학교 〉

연번	학교명	출품작품수			입상자수			상별					
		운문	산문	계	운문	산문	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합계
1	개성고등학교	1		1									
2	거제상문고등학교		1	1		1	1				1		1
3	거창대성고등학교	1		1									
4	거창여자고등학교	1		1									
5	경기외국어고등학교		1	1		1	1				1		1
6	경북고등학교		1	1									
7	경북공업고등학교	15	20	35	5	8	13			5	2	6	13
8	경북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등학교		1	1									
9	경북여자고등학교	1	1	2									
10	고양국제고등학교		1	1		1	1					1	1
11	고척고등학교	1		1									
12	광덕고등학교		1	1									
13	광일고등학교		1	1									
14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1		1									
15	광주진흥고등학교		1	1									
16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1		1									
17	구암고등학교	1		1	1		1					1	1
18	김해수남고등학교		1	1									
19	대구대건고등학교	1		1	1		1					1	1
20	대구서부고등학교		1	1		1	1				1		1
21	덕문여자고등학교	1		1	1		1					1	1
22	동남고등학교		1	1									
23	동문고등학교		1	1									
24	마산제일고등학교	1		1									
25	목포여자고등학교	1		1									
26	반석고등학교		1	1		1	1					1	1
27	방산고등학교		1	1									
28	병점고등학교	1		1									
29	보라고등학교		1	1		1	1					1	1
30	보람고등학교	1		1	1		1			1			1
31	부산진고등학교	1		1	1		1				1		1
32	비슬고등학교	2		2									
33	상일여자고등학교	1		1									
34	서산여자고등학교		1	1									

연번	학교명	출품작품수			입상자수			상별					
		운문	산문	계	운문	산문	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합계
35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1		1									
36	세종장영실고등학교		1	1									
37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1	1	2		1	1		1				1
38	아름고등학교	1		1									
39	안산경안고등학교	2		2	1		1				1		1
40	안화고등학교	1		1									
41	양구고등학교	1		1									
42	연수여자고등학교		1	1									
43	영신간호비즈니스	1		1									
44	영천성남여자고등학교		1	1									
45	영훈고등학교	1		1									
46	이서고등학교	1		1									
47	이포고등학교	1		1									
48	이현고등학교	1		1									
49	인명여자고등학교	1		1									
50	인천상정고등학교		1	1									
51	인천신명여자고등학교	1		1									
52	인천하늘고등학교		1	1									
53	장기고등학교	1		1									
54	저동고등학교	1		1	1		1				1		1
55	제주외국어고등학교	1		1									
56	조종고등학교	1		1	1		1				1		1
57	중마고등학교	1		1									
58	청도고등학교	1		1	1		1		1				1
59	청원고등학교	1		1									
60	충북고등학교	1		1									
61	충북청원고등학교	1		1	1		1		1				1
62	학교밖청소년	2	2	4		2	2		1			1	2
63	한빛고등학교		1	1									
64	한서고등학교	1		1	1		1				1		1
65	한성여자고등학교	1		1	1		1					1	1
66	한일여자고등학교	1		1									
67	합천평화고등학교		1	1									
68	현화고등학교		1	1									
고등학교 소계		61	48	109	17	17	34	0	4	6	10	14	34

2) 입상자 명단
- 104명, 3개교

〈운문부문〉

번호	수상	학제	출품자	작품명	학교	학년	상훈
1	대상	중학교	권효민	첫새벽	시지중학교	3	행정안전부장관상
2	금상	초등학교	이민성	종이비행기	대구명덕초등학교	5	대구광역시장상
3			하다솜	꺼지지 않는 불꽃	대구명덕초등학교	5	
4		중학교	배창민	우리 모두 모였으니 어서가세	왕선중학교	1	
5			허다연	그날의 용기	왕선중학교	2	
6		고등학교	백민승	담을 넘는 시간	충북청원고등학교	1	
7			장미	그날, 우리는 꽃이었다	청도고등학교	3	
8	은상	초등학교	김서연	누구보다도 반짝였던 별들	대구명덕초등학교	5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장상
9			안유하	그날의 교복	대구명덕초등학교	4	
10			한태검	은하수	대구명덕초등학교	5	
11		중학교	남현서	민주화의 공명	왕선중학교	3	
12			전서진	그날만큼은 어리지 않았던 그들	왕선중학교	2	
13			전해송	연어	시지중학교	2	
14		고등학교	김민주	백만 학도가 만든 봄의 시작	경북공업고등학교	2	
15			방재현	불꽃은 어디서부터 타오르는가	경북공업고등학교	2	
16			신아정	첫 장의 민주주의	보람고등학교	2	
17	동상	초등학교	곽지후	불	대구명덕초등학교	5	2·28원로 자문위원장상
18			김서은	발자국	대구명덕초등학교	5	
19			신우찬	민주주의의 무궁화	대구명덕초등학교	4	
20			윤영준	이제야 알게 된 고마운 마음	생금초등학교	6	
21			이서인	2.28 민주운동이 만들어준 것	대구경동초등학교	4	
22		중학교	강한슬	민주화의 도화지	왕선중학교	2	
23			김세영	선	천내중학교	1	
24			김영재	불꽃	왕선중학교	3	

번호	수상	학제	출품자	작품명	학교	학년	상훈
25	동상	중학교	변상욱	무서움이 없는 영웅들이 보이는가	천내중학교	3	2·28원로 자문위원장상
26			임서아	바다 속 상어	왕선중학교	3	
27		고등학교	강다현	나는 그날을 모르지만	저동고등학교	1	
28			김민재	출석하지 않은 날, 역사는 기록되었다	부산진고등학교	1	
29			김태연	- 민주주의 그날	안산경안고등학교	3	
30			남궁성은	껍질을 깨는 날	한서고등학교	3	
31			이윤제	벽을 넘어선 봄	조종고등학교	1	
32	입선	초등학교	김나연	2월 28일	함현초등학교	6	심사위원장상
33			김민서	새로운 봄의 시작, 2.28 운동	대구명덕초등학교	6	
34			김수인	우리들의 모닥불	대구명덕초등학교	6	
35			위애림	낮 12시 55분	대구명덕초등학교	5	
36			유시아	작은 영웅	함현초등학교	5	
37			이윤재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 마음	광명광성초등학교	6	
38			전우진	유성	대구명덕초등학교	6	
39		중학교	강민수	투표함	수성중학교	3	
40			김나연	보이는가	왕선중학교	2	
41			김태연	학생들이 걸은 길	왕선중학교	3	
42			송다나	모래알갱이	범박중학교	3	
43			안태윤	이름없는 꽃들	왕선중학교	3	
44			이관우	작은 공기 입자들 처럼	왕선중학교	2	
45			이아림	겨울의 끝자락에서	종촌중학교	2	
46		고등학교	고희주	민주주의 씨앗	한성여자고등학교	2	
47			김가현	2월의 외침 4월의 봄이 되어	구암고등학교	2	
48			김보윤	기포	덕문여자고등학교	1	
49			김성훈	거리에서	경북공업고등학교	2	
50			배종호	계승되는 민주 정신	경북공업고등학교	2	
51			정원준	봄을 부른 첫 물결	대구대건고등학교	2	
52			홍준표	고등학생이 시작이었다.	경북공업고등학교	1	

〈산문부문〉

번호	수상	학제	출품자	작품명	학교	학년	상훈
1	대상	중학교	김나영	기억의 깃발 아래, 우리는 걷는다	살레시오 여자중학교	2	행정안전부장관상
2	금상	초등학교	김시환	2·28민주운동이 나를 부를 때	대구동덕초등학교	5	대구광역시 교육감상
3			황재윤	2.28 학생민주의거,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용기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6	
4		중학교	김라희	지나간 청춘이 지금의 청춘에게 준 미래	왕선중학교	2	
5			정다겸	눈을 뜨고 있어라	대구동도중학교	1	
6		고등학교	강동완	뜨거운 열기를 가진 작은 불씨	수도전기 공업고등학교	2	
7			손창현	민주 발전의 초석 - 민주주의 횃불 2.28	-	-	
8	은상	초등학교	박세건	민주주의 물꼬	진건초등학교	6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장상
9			이지우	송고한 희생과 독재에 맞서 싸운 용기를 잊지 말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6	
10			장윤지	2.2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6	
11		중학교	김나현	그날의 교복, 오늘의 민주주의	왕선중학교	1	
12			김단아	음소거 버튼	충남여자중학교	1	
13			김현주	복귀(復歸) :본디의 자리로 되돌아가다	대구강동중학교	2	
14		고등학교	구승환	2.28 민주운동을 기억하며	경북공업고등학교	2	
15			김동휘	2.28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의 우리	경북공업고등학교	2	
16			김재겸	2·28민주운동, 평범한 학생들이 만든 큰 변화	경북공업고등학교	2	
17	동상	초등학교	박민석	2.28 대구 학생들의 용기에 감사하며	대구한샘초등학교	5	2·28원로 자문위원장상
18			안은재	민주주의를 향한 그 날의 뜨거운 함성	대청초등학교	6	
19			오은수	노력들이 지켜낸 민주주의	대구동인초등학교	6	
20			이대현	2.28학생 민주 의거를 기억하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6	
21			최하은	평범한 학생들의 용기	대구삼육초등학교	6	

번호	수상	학제	출품자	작품명	학교	학년	상훈
22	동상	중학교	서준	2.28에서 피어난 민주주의	시지중학교	1	2·28원로 자문위원장상
23			송용준	60년전 2:28	왕선중학교	2	
24			임나율	너의 바람	왕선중학교	1	
25			정현우	2.28 민주운동, 학생들이 일으킨 봄의 서곡	왕선중학교	2	
26			최은지	살아있는 유산	한울안중학교	3	
27		고등학교	김규민	본분	대구서부고등학교	3	
28			김도현	작은 외침, 큰 변화	경북공업고등학교	2	
29			김지은	기억 위에 그은 빛	경기외국어 고등학교	2	
30			이혜민	2.28에서 배운 대한민국과 나의 미래	거제상문고등학교	3	
31			황정혁	그들 교복의 무게를 나에게 담는다.	경북공업고등학교	1	
32	입선	초등학교	김도현	마음 속의 불꽃놀이	대구명덕초등학교	6	심사위원장상
33			김시윤	잊혀진 그 날, 기억해야 할 2.28 민주운동	대구명덕초등학교	4	
34			김지오	1960년 2월 28일에 있었던일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6	
35			우예성	보상과 예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6	
36			이로빈	그날은 그리고 오늘은	대구동인초등학교	5	
37			현지아	아픔 뒤 기쁨	대구동인초등학교	4	
38			황유겸	2.28 민주화운동	대구명덕초등학교	6	
39		중학교	김시우	2.28민주화 운동, 그 후의 이야기	왕선중학교	2	
40			김예빈	그날의교복 -오늘의외침	고령다산중학교	3	
41			김정은	그날의 이야기	왕선중학교	2	
42			김혜인	해독(解毒)	성명여자중학교	2	
43			신정현	별과 어둠	임실지사중학교	3	
44			양다인	2.28 그날에	왕선중학교	1	
45			임소윤	검은 꽃	왕선중학교	1	
46		고등학교	김슬아	60여 년 후, 고등학생	고양국제고등학교	1	
47			김연재	뜨거운 다짐을 하게 된 2·28민주화운동	보라고등학교	2	

번호	수상	학제	출품자	작품명	학교	학년	상훈
48	입선	고등학교	남건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경북공업고등학교	2	심사위원장상
49			이재황	스스로만을 위해서가 아닌	-	-	
50			차봉규	항상 정의로울 수는 없어.	경북공업고등학교	1	
51			차비원	종이와 걷는 아이들	반석고등학교	1	
52			최지우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경북공업고등학교	1	

나) 단체상

순번	입상학교명	훈격	비 고
1	대구명덕초등학교	대구광역시교육감	다수응모 및 성적우수
2	왕선중학교	대구광역시교육감	다수응모 및 성적우수
3	경북공업고등학교	대구광역시교육감	다수응모 및 성적우수



2·28민주운동기념 도서관 이용안내

1. 2·28민주운동기념회관 3층 (명덕초등학교 옆)

구분	일반 자료실	유아·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평일 (화~금)	09:00~19:00		09:00~18:00
주말 (토~일)	09:00~17:00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관

2. 대출안내

- 대출시, 본인도서회원증(실물 또는 모바일 대출증)으로 대출가능
- 자관내 1인 최대 10권, 15일간 대출가능 (대구 공공도서관 총 30권)
- 관외 대출중인 도서에 한해 1인 2권이내, 도서당 2명까지 예약가능
(문자 통지 후 3일 이내에 미대출시 자동으로 예약취소)

3. 유의사항

- 자료실 내 음식물은 반입 금지
- 정기간행물은 자료실 내 열람만 가능
- 무인 기기 대출 및 반납시 확인증 반드시 확인
- 도서 반납 후 2일 이후에 대출 가능 (연장불가)
- 타관 및 부록자료 반납은 데스크에서만 가능 (무인기기 반납불가)
- 문의 : ☎ 053-257-2280



2·28법률·세무상담실 무료 운영 안내

1.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

- 법률 : 최덕수 변호사 (매주 화·금요일 14시~17시)
- 세무 : 서성욱 세무사 (매주 금요일 10시~12시)

2. 장소 및 문의

- 장소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 2·28법률·세무상담실
- 문의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053-217-0228



발행인	곽대훈
편집인	백재호
편집위원	김상진, 김약수, 이은경, 조두진, 하청호, 송정희
발행처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www.228.or.kr
인쇄	2025년 9월 30일
발행	2025년 9월 30일
인쇄처	교육사 Tel. 053-254-0088

- 『2·28햇불』은 홈페이지(www.228.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2·28햇불』은 대구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2·28햇불』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제작하여 회원들과 전국의 공공기관, 학교에 증정합니다. 2·28의 학생들이 외쳤던 '민주'와 '정의'의 뜻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함께 볼 수 있도록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 『2·28햇불』은 비도공 서적 용지인 두성페이퍼 아도니스러프 76g으로 제작됩니다.

제65주년 2·28민주운동 헌정공연

기억과 울림, 자유를 향한 외침

2025. 10. 11. SAT 19:00

수성아트피아 대극장



소향
Sohyang



대구시립
소년소녀합창단



멜보스크루



송극



한울림